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2년 2월

석사학위논문

<오로봉기> 작품군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임 유 나

<오로봉기> 작품군 연구

A Study on the group of *Orobonggi*

2022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임 유 나

「오로봉기」 작품군 연구

지도교수 엄태식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임 유 나

임유나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정길수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상원 (인)

위원 조선대학교 조교수 엄태식 (인)

2021년 12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III

I. 서론

1. 연구 목적 1
 2. 연구사 검토 2
 3. 연구 방법 4

II. <오로봉기> 작품군의 서지와 이본

1. <오로봉기>, <황태을전>, <오선기봉>의 서지 사항 6
 2. <오로봉기>, <황태을전>, <오선기봉>의 이본 비교 7

III. <오로봉기>의 창작 배경과 구성적 특징

1. 조선 후기 소설의 수용
 1) <숙향전>, <강릉추월전>의 수용 16
 2) <구운몽>의 수용 22
 3) 여성영웅소설의 수용 25
 2. <오로봉기>의 구성적 특징
 1) 가족의 이산과 결합 28
 2) 남녀의 결연과 인물의 특징 30
 3) 오행에 따른 작명과 배치 34

IV. <황태을전>, <오선기봉>의 번역과 개작

1. <항태을전>의 번역 양상	41
2. <오선기봉>의 개작 양상	46
V. 결론	50
■ 참고문헌	

ABSTRACT

A Study on the group of *Orobonggi*

Im yuna

Advisor : prof. Eom Taesik, Ph.D.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rehensively examine the <Orobonggi> work group, namely <Orobonggi>, <Hwang Tae-euljeon>, and <Oh Seon-gi-bong>.

The bibliographical details of the <Orobonggi> group were organized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hree works was examined through mutual contrast. By contrasting the title and text of the chapter titles of <Orobonggi>, <Hwang Tae-euljeon>, and <Oseongibong>, the three existing works do not have a direct influence on each other. The Suncheon Deep Rooted Museum collection <Hwang Tae-euljeon> and the Korean print book <Oseongibong> are translated or rewritten based on the undiscovered Chinese text <Orobonggi>, and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collection <Orobonggi> has a certain distance from the original, confirmed that it is a transcription copy.

The creative background and compositional characteristics of <Orobonggi> were examined. In <Orobonggi>, motif from other novels appear. The figure of the male and female protagonists in <Sukhyangjeon> is similar to that of Hwang Tae-eul, the male protagonist of <Orobonggi>, and the motif in <Gangneung Chuwoljeon> where the male protagonist is raised in a thief group and forms a relationship with the female of this group. And we can confirm that <Orobonggi> is very similar in the

narrative development method of <Goounmong> and the female figure.

<Orobonggi> is a story about family separation and union, and marriage between a man and a woman. Family separation in <Orobonggi> is a device for Hwang Tae-eul's marriage, enabling the male protagonist to freely realize his affection. Characteristics of the main characters are placed in the five elements and can be identified in the names of gender, place of birth, and residence. The name of the bird can be confirmed in the names of the main characters, and this also embodies the character of the character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bird.

The translation and adaptation aspects of <Hwang Tae-euljeon> and <Oh Seon-gi-bong> were examined. <Hwang Tae-euljeon> is a Korean translation, and the Korean version is mostly translated, and the sentences appear deformed during the translation. <Oseongibong> is an adaptation, and scenes deleted or abbreviated in Korean typeface do not affect the theme, but it was transformed for commercial purposes when <Oh Seon-gi-bong> was published in Korean print.

I. 서론

1. 연구 목적

고전소설은 대개 필사로 전승되기에, 그 과정에 수많은 이본이 생성된다. 그러므로 어떤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본을 수집하고 비교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그뿐 아니라 고전소설은 한문본에서 국문본으로, 국문본에서 한문본으로 번역되는가 하면, 번역 과정에서 개작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번역 및 개작 양상에 대하여 관심을 확장하고 작품군 전반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오로봉기(五老峰記)>는 작자 및 창작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19세기 한문 소설로 추정된다.¹⁾ 관련된 기록으로는 다나카 우메키치(田中梅吉)의 병합 직후 시대에 유포된 조선소설의 서목²⁾에 ‘五老峰記’가 표기되어 있는데, 작품명만 언급하고 있어서 현전하는 <오로봉기>를 의미하는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지금까지 알려진 <오로봉기>의 이본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한문필사본 <오로봉기>와 국문활자본 <오선기봉(五仙奇逢)> 2종이며, <황태을전(黃太乙傳)>의 경우, 조희웅이 그 제목만 소개했을 뿐³⁾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어 본고에서 처음으로 연구하는 작품이다.

<오로봉기>는 남주인공 황태을이 입신양명(立身揚名)하는 과정에서 네 명의 여성들과의 만남, 이별, 결연을 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다가 90세에 선화(仙化)하는 내용을 그린 소설이다. <오로봉기>는 조선 후기에 창작된 소설인 만큼 이전 시기 소설의 영향이 발견되는데, 이에 대하여 정밀하게 살펴보고, <오로봉기>만의 구성적 특징을 검토해야 한다. 한편 <황태을전>과 <오선기봉>은 <오로봉기>의 국문 번역본이지만, 번역과 개작의 양상이 상이하다. 본고에서 세 작품을 <오로봉기> 작품군으로 명명하고 <오로봉기> 작품군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1) 한의승, 『19세기 한문중단편소설의 세계』, 경진, 2017, 15면.

2) 유춘동, 「한일병합 즈음에 유통되었던 고소설의 목록」, 『연민학지』 15, 연민학회, 2011, 301면.

3) 조희웅, 『한국 고전소설사 큰사전』, 34,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7, 144면.

2. 연구사 검토

<오로봉기> 작품군 중 먼저 알려진 것은 <오선기봉>으로, 김기동이 처음으로 소개하고 작품의 서지와 경계를 정리했다. 그는 <오선기봉>이 <구운몽>과 <옥루몽>처럼 일부다처의 이상적인 애정생활을 그려낸 작품이라고 하였으며, <구운몽>의 아류작으로 평가했다.⁴⁾ 최창록은 <오선기봉>이 도교의 시공간과 허탄성(虛誕性)에 바탕을 두고, 결말에 주인공이 천상으로 승천하는 서사 구조의 특징을 가진 위선도(僞仙道) 소설이라고 했다.⁵⁾ 양혜란은 기봉류 소설을 연구하면서 결연 형태에 투영된 인간의식 지향에 주목했는데, <오선기봉>에 나타난 결연이 신부에 의해 완성되는 신부지감력(新婦知鑑力)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결연에 있어서 부권의 권리가 사라지는 전통적인 윤리의 전환과 자유선택이라는 새로운 사회질서의 지향을 의미한다고 했다.⁶⁾ 김용범은 <오선기봉>을 도교적 영웅소설로 분류하고, 도교 사상이 작품의 소재와 서사 구성에 수용된 점을 논의했다.⁷⁾ 이상의 연구는 <오선기봉>의 기본적인 성격, 유형 분류 등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오선기봉>의 전반적인 연구는 김석규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작품의 구성 단계에 따른 내용 분석과 그 의미를 밝히고, 도교적 소재와 환원 구조가 나타나는 도교계 소설로 평가했으며, 등장인물의 형상에 나타난 충·효·열이 작가의식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였다.⁸⁾ 한상현은 일부다처의 이상적 애정생활을 표현한 작품이라는 점에는 동의하면서, 남주인공이 여성들과의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는 행위에는 각각의 의미가 있다고 하였으며, 남주인공의 여성 편력적 성향을 정신분석학적으로 분석하였다.⁹⁾

<오로봉기>는 차충환이 처음으로 소개하였다. 그는 작품의 서지와 장회별 경계를 밝히고, 운명론적 서사 형식과 주동적 여성 인물들의 형상화를 통해 서사적 특징을 규명했다. 또한 이 작품이 <구운몽>과 <숙향전>의 영향을 받은 작품이며, 애정전기소설의 성격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오로봉기>와 함께 표기된 <금화사기>의 창작시기, <숙향전>의 내용을 수용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오로봉기>의 창작 시기

4) 김기동, 『이조시대소설의연구』, 성문각, 1974, 85~89면.

5) 최창록, 「한국신선류소설의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논문, 1983, 74~109면.

6) 양혜란, 『조선조기봉류소설연구』, 이화문화사, 1995.

7) 김용범, 『도교사상과 영웅소설』, 문학아카데미, 1991, 55~126면.

8) 김석규, 「오선기봉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2.

9) 한상현, 「오선기봉의 구조와 여성편력적 의미의 심리적 고찰」, 『겨레어문학』 30, 겨레어문학회, 2003.

가 <숙향전> 이후라고 하였다.¹⁰⁾

정지아는 <오로봉기>의 인물 형상화와 서사 구조, 소설의 유형을 논의했다. 재자가 인형 인물의 등장과 서술구조 분석을 통해 이 작품을 재자가인소설로 규정하고, 적강 모티프를 수용한 운명론적 서사 전개와 여성 영웅 화소의 개입 등 통속적 특성을 가진 소설임을 밝혔다. 한편 <오선기봉>이 <오로봉기>의 번역본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오로봉기>의 창작시기를 19세기 말로 추정하고 있다.¹¹⁾

김진영·차충환은 처음으로 <오선기봉>과 <오로봉기>를 비교하였다. 두 작품의 장회 제목을 비교하고 내용상의 차이를 분석하여 선후관계를 밝혔다. <오로봉기>가 선본(先本)이고 <오선기봉>을 <오로봉기>의 번역본으로 하였으며, 번역 과정에서 일어난 변화 양상을 분석하여 <오선기봉>에 나타난 번역 양상을 주인공들의 애정담에 중점을 두고 서술하기 위한 장치였다고 했다.¹²⁾

한의승은 19세기 한문중단편소설을 연구하면서 <오로봉기>가 16회의 장회소설이며 일대다 결연 구도를 갖추고 있는 특징을 들어 이 작품이 재자가인소설의 전형적 작품이라고 했다. 그리고 <오로봉기>에서 <구운몽>과 <숙향전>의 삽화를 수용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오로봉기>가 대중성을 갖추기 위한 19세기 한문중단편 소설의 특징인 것으로 보았다.¹³⁾ 한의승은 이후 조선후기 재자가인소설의 형식적 특징을 설명하면서 <오로봉기>의 적강 모티프 형식을 조선적 재자가인소설의 변형의 핵심이라고 하였다.¹⁴⁾

차충환은 <오선기봉>과 <오로봉기>의 비교 연구를 단행본에 재수록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그 요지는 <오선기봉>이 <오로봉기>의 ‘번역’이 아니라 ‘개작’이라는 것이다.¹⁵⁾

이상으로 <오선기봉>과 <황태을전>의 연구사를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황태을전>은 현재 그 작품명만이 학계에 보고된 상태인데, 조희웅은 <오선기봉>의 이본으로 <오로봉기>와 <황태을전>을 언급하고, <황태을전>의 권수, 소장처, 필사기를 제시했다.¹⁶⁾

10) 차충환, 「오로봉기 연구」, 『어문연구』 3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6, 301~323면.

11) 정지아, 「오로봉기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논문, 2009.

12) 김진영·차충환, 「오선기봉의 형성과정과 의의에 관한 연구」, 『어문연구』 6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9, 165~187면.

13) 한의승, 앞의 책, 204~215면.

14) 한의승, 「조선후기 재자가인소설 관련 논의의 비판적 검토와 전개 양상에 대한 시론」, 『인문과학연구』 38,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31~49면.

15) 차충환, 『고소설의 개작과 신작』, 역락, 2021, 15~40면.

이상으로 <오로봉기> 작품군 연구사를 살펴보았다. <오선기봉>에 대한 연구는, <오로봉기>가 발견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은 대개 작품의 전반적인 성격 및 유형 분류에 중심이 놓여 있었고, <오로봉기>가 발견된 이후의 것은 <오로봉기>와의 관련 속에서 번역 및 개작의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주된 경향이었다. 그리고 <오로봉기>의 연구는 인물 형상화와 서사 구조, 재자가인소설적 특징, <오선기봉>과의 관련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황태을전>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소개조차 이루어지지 않은바, <오로봉기>·<황태을전>·<오선기봉>의 관계를 규명하고 <오로봉기> 작품군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연구 방법

본고에서는 <오로봉기> 작품군, 곧 <오로봉기>·<황태을전>·<오선기봉>을 종합적으로 고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오로봉기> 작품군의 서지 사항과 이본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한문본인 <오로봉기>의 창작 배경과 구성적 특징을 고찰하며, 마지막으로 국문본인 <황태을전>과 <오선기봉>의 번역 및 개작 양상을 검토한다.

제Ⅱ장에서는 <오로봉기> 작품군의 존재 양상을 살펴보겠다. <오로봉기>·<황태을전>·<오선기봉>의 서지 사항을 정리하고, 세 작품이 어떤 특징과 차이를 보이는지 상호 대조하도록 하겠다. 먼저 세 작품은 장회체 소설로 모두 장회 제목을 갖추고 있는데, 각 작품마다 차이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장회 제목의 차이를 살펴본 다음 세 작품의 서술 내용을 검토하여 한문본과 국문본과의 관련 양상을 파악하겠다.

제Ⅲ장에서는 <오로봉기>의 창작 배경과 구성적 특징을 분석하겠다. <오로봉기>는 다른 소설의 화소를 수용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작품에 수용된 전대 소설의 영향을 정확히 지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작품의 구성적 특징을 살펴보겠다. 본고에서는 <오로봉기>의 구성적 특징을 ‘가족의 이산과 결합’, ‘남녀의 결연과 인물의 특징’, ‘오행에 따른 작명과 배치’ 등으로 구분하여 논하도록 하겠다.

제Ⅳ장에서는 <황태을전>과 <오선기봉>의 번역과 개작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황태을전>은 <오로봉기>의 국역본, <오선기봉>은 <오로봉기>의 개작본이라 할 수 있는데, <황태을전>은 문장의 번역 등을 중심으로, <오선기봉>은 서사 단락의

16) 조희웅, 앞의 책, 118~144면.

차이를 중심으로 하여, 번역과 개작의 구체적 양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II. <오로봉기> 작품군의 서지와 이본

1. <오로봉기>, <황태을전>, <오선기봉>의 서지 사항

<오로봉기> 작품군은 한문필사본 <오로봉기(五老峰記)>, 국문필사본 <황태을전(黃太乙傳)>, 국문활자본 <오선기봉(五仙奇逢)>을 말한다. 여기서는 세 작품의 서지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오로봉기>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이 유일본으로 작자 및 창작 시기 미상의 한문필사본이다. 1책 단권으로 책의 크기는 28.9×24.3cm, 총 46장[91면], 면당 16행, 행당 24자 내외로 필사되어 있다. 표제는 ‘五老峰記’이지만 <오로봉기>와 <금화사기(金華寺記)>가 함께 수록되어 있는데, <오로봉기>는 1~67면, <금화사기>는 67~91면이다. <오로봉기>는 장회체소설로 제1회~제8회는 상권, 제9회~제16회는 하권으로 나뉘어졌다. 그리고 1~2면의 필체는 나머지 면의 필체와 확연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로 보아 두 사람 이상이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국문필사본 <황태을전>은 본고에서 처음으로 소개하는 작품으로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2권 2책의 국문필사본으로 제1책은 상권, 제2책이 하권이다. 상권 41장[81면], 하권 31장[62면]으로 총 72장[143면]이다. 면당 10행, 행당 30자 내외로 필사되어 있다. 표제는 ‘黃太乙傳’과 ‘황태을전’이 함께 표기되어 있고, 필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해서 한 사람이 필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황태을전> 상권에는 장회 제목이 없고 하권에만 표기되어 있어 <오로봉기>나 <오선기봉>의 경우와는 다르다. <오로봉기>와 비교해 보면 상권에 수록된 내용은 <오로봉기>의 제1~제9회까지 내용이고 하권은 <오로봉기> 제10~제16회 내용에 해당한다. 상권과 하권의 마지막 면에는 각각 필사기와 필사자의 정보가 있으며, 하권의 필사 정보가 상권의 그것보다 구체적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술 정월 십사일 위시하야 십구일 등서라(<황태을전>, 상 81면)

갑술 정월 십사일 위시하야 이십삼일에 등서

이 책은 진서로 국문에 등서을 하자 하니 말씀시도 업고 또한 오서낙자가 혹 잇실 듯하오니

모든 이가 보시거든 놀너보시고 용서하야 주시오

경북 상주읍 복용니 리순면 이쵸부가 지종질녀의게 등서하야 주노라<황태을전>, 하 62면)

<황태을전> 필사기에서 필사 시기, 독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필사 연도인 갑술년은 1874년 혹은 1934년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상주면이 상주읍으로 승격한 해는 1931년인데, 필사기에 바뀐 행정구역 명칭인 상주읍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934년에 필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필사 시작일과 종료일이 표기되어 있으며, 총 143면을 필사하는 데 걸린 시간이 열흘이 되지 않는다. 필사자가 재종질녀를 위해 필사한 것으로 보아 남성 필사자가 여성 독자를 위해 필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책은 진서로 국문에 등서를 하자 하니”라고 한 것으로 보아 한문본을 국문본으로 번역한 것으로, 현전하는 <황태을전>이 한문본을 직접 번역한 이본이며 국문본의 전사본(轉寫本)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황태을전>의 내용을 <오로봉기>와 비교해 보면, 상권에 황태을과 청운학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 누락되어 있는데, 약 1면 분량으로 보인다. 주인공 남녀의 결연 같은 주요한 장면이 없다는 것은 의도적 삭제도 볼 수는 없다. 필사 과정에서 실수했거나 모본인 한문본 <오로봉기>에 해당 면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오선기봉>은 1917년에 광동서국과 태학서관에서 공동으로 발행한 국문활자본 소설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이며 김기동이 영인하여 간행한 바 있다.¹⁷⁾ 총 65면이고 표지에는 ‘五仙奇逢’과 ‘오선기봉’이라는 제목이 함께 표기되어 있다. <오선기봉>은 12회의 장회체 소설이며 <오로봉기>와 등장인물은 동일하지만, <오로봉기>와 비교했을 때 여주인공들의 이별과 시련을 겪는 장면이 확대되고 여주인공의 능력을 보여주는 장면이 삭제되기도 하는 등의 변개가 일어났다.

2. <오로봉기>, <황태을전>, <오선기봉>의 이본 비교

<오로봉기> 작품군은 한 명의 남주인공이 네 명의 여주인공들을 만나 이별과 재회 등의 과정을 겪은 후 90세에 선화하는 내용을 그리고 있다. <오로봉기>·<황태을전>·<오선기봉>에는 동일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그 내용도 거의 유사하다. 하지만 세 작품은 내용상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적지 않다. 여기서는 <오로봉기> 작품군의 차이

17) 동국대 한국학연구소 편, 『활자본고전소설전집』 4, 아세아문화사, 1976, 367~433면.

점을 검토하여, 세 작품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오로봉기> 작품군은 모두 장회체 소설이다. 장회 제목은 전개될 내용을 집약적으로 제시하고 작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서사 전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로봉기> 작품군의 장회 제목은 모두 다르게 나타나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오로봉기	항태을전	오선기봉
黃處士禱山生子 石道作詩遺客	×	黃處士禱山生子 石道人遺書接客 황처사가 산에 빌어 오들났코 석도인이 글을 짓쳐 접긱허다
老夫妻一東一西 兒將成能文能武	×	老夫妻一東一西 兒將相能文能武 늙은 부처가 일동일셔허고 아히장상이 능문능무허다
靑雲鶴和詩留約 玄天鴻却婚待時	×	靑雲鶴知詩留約 玄天鴻却婚待時 청운학이 글을 화답허야 언약을 머므르고 현턴홍이 혼인을 물이고 씨를 기다리다
邯鄲路丹書致客 翠香閣文錦結親	×	
別詩中雙燭爲期 小樓上兩情相感	×	別詩中雙燭爲期 小樓上兩情相感 이별흔글 가온디 쌍촉을 괴약허고 쇼루우에 량정이 서로 늑기다
三井洞再過悲傷 一部書相託激慙	×	白花薰溺水全節 黃太乙入山受書 비화연이 물에 빠져 절을 보전허고 황타을이 산에 들어가 글을 밧다
相思樓怨女同居 九牛宮天人下降	×	思相樓怨女同居 九牛宮天人下降 상스류에 원녀가 갖치 거하고 구우궁에 턴인이 하강허다
迫事勢憤從上命	×	迫事勢順從上命 스세에 펍박허야 상명을 순종허고

得詩句付度他心		得詩句付度他心	시귀를 엮고 그 마음을 헤아리다
黃學士奉命征濟 玄小姐變服入洛	×	黃學士奉命征濟 玄小姐變服入洛	황학사가 명을 받아 제동을 치고 현쇼저가 변복하고 낙양에 드러오다
咏山水感歎才體 察音色分辨男女	산수를 읊푸고 축축으라 감동하고 음식을 살피서 남녀를 분별한다	玄天鴻飛劔斬賊	현턴홍이 칼을 날여 도적을 버이고
三才士賦詩頌功 兩小姐奉命入宮	삼지사 부시 성공하고 양쇼저 봉명 입궁이라	朱桂鸞考詩知蹤	주계난이 글을 상고하고 종적을 알다
訪寓舍公主見誠 入宮禁小姐陳懷	방우사 공주견성 팔궁금 쇼저진회	入宮禁淑女陳情	궁금에 드러가미 숙녀가 뜻을 버풀고
黃河水感夢祭神 太平宴聽琴垂淚	황한수에 감몽제사하고 티평연에 청금슈뉴라	渡黃河尙書迎親 太平宴聽琴乘淚 花燭夜感舊論情	황하를 건너다가 상서가 어버이를 맞다 티평연에 검은고를 뜻다가 눈물을 흘리고 화촉야에 네를 늑기고 정을 의논하다
合卺日五仙行禮 獻壽宴四人助歡	오선이 근비에을 hing하고 헌슈연에 사인이 즐거한다		
黃承相講論陰陽 朱夫人請同稱號	×		
乞歸日路達勝地 明信宮夢受赦命	비서도라가는 길에 쵸흔 썩을 만나고 명신궁에서 썩에 사명을 바다	黃極殿丞相乙歸 望仙樓五星還圓	황극전에 승상이 도라가기를 빌고 망선루에 다섯별이 환원하다

세 작품은 회수, 분회 위치, 장회 제목이 모두 다르다. <오로봉기>는 총 16회이며, 일곱 자씩 두 구(句)의 대우(對偶)를 이룬다. <오로봉기> 제1회~제3회, 제5회, 제7회~제9회와 <오선기봉> 제1회~제3회, 제4회, 제6회~제8회 부분은 매우 흡사하지만 나머지는 장회 제목이 다르다.

<황태을전>은 장회 제목이 하권에만 국문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총 몇 회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권의 장회는 총 7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오로봉기>의 제10회~제14회, 제16회에 해당하는 부분이 <황태을전>에서는 직역되어 있다. 그리고 제15회에 해당하는 장회 제목은 <황태을전>의 본문처럼 쓰여 있는데 해당 부분은 다음과 같다.

“현부인은 천지조화의 권한을 빼앗을 수 있고 선인으로 하여금 속세의 인간에게 편지를 부치게 하니 현부인은 신인이다.”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고 신기해하지 않음이 없었다. 승상 또한 칭찬하였다. 황승상이 음양을 강론하기를 청하고 주부인이 칭호를 같이하기를 청하다. 그 뒤로 승상이 자주 부인에게 환술을 보여 주기를 청했지만 부인은 들어주지 않고 말했다. “환술은 여자가 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만 지난번에는 명을 받았으므로 감히 거역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할 수 없는데 다시 할 수 있겠습니까?”[玄婦能奪天地造化之權 又能使仙人寄書於俗客 玄婦神人也 座間莫不驚異 丞相亦稱之 黃承相講論陰陽 朱夫人請同稱號 此後 丞相屢請夫人 更睹其術 夫人不肯曰 幻術者 非女子可行 向被尊命 不敢不逆 然一猶不可其可再乎](<오로봉기>, 57~58면)

현부인은 천지조화를 가지고 그 신기한 묘술은 인간 사람으로 능히 말할 수 없는 비라 능히 선인의 편지를 마라서 속직의게 붓치니 진실노 천상 선인이라다 좌중이 막불경히하더라 승상이 또한 칭찬하시고 승상이 음양조화를 강론할시 주부인 청하야서 칭호를 갖치하자고 하더라 이후에 승상이 현부인을 드하야 그 술범을 다시보기로 청하니 부인이 즐겨 아니하야 가로디 환술이라는 거선 여자의 할부가 아니라 형일에는 존명이 기시기로 거역지 못하야 형흔바이나 그러나 한 번도 오히려 불가흔되 었지 다시 형할리오(<황태을전>, 하 44면)

<황태을전> 장회 제목은 <오로봉기> 제10회~제16회의 장회 제목과 모두 일치하는데, <오로봉기> 제15회에 해당하는 부분만 누락되어 있다. <황태을전>의 밑줄 친 부분은 <오로봉기> 제15회의 장회 제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황태을전>의 해당 부분은 문맥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 결국 이는 <황태을전>의 저본이 된 <오로봉기>의 필사 과정에서 필사자가 장회 제목을 본문으로 착각하여 일어난 오기인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황태을전>의 모본은 국문본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황

태을전>이 저번으로 삼았던 한문본 <오로봉기>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이 아닌, 다른 이본이었던 것이다. 한편 <오로봉기>와 <황태을전>을 비교해 보면, <황태을전>은 <오로봉기>의 완벽한 직역은 아니나 대체적으로 <오로봉기>의 내용을 직역한 이본이라고 할 수 있다.

<오선기봉>은 총 12회의 장회체 소설로, 장회 제목은 한문과 국문으로 함께 표기되어 있고 일곱 자씩 두 구가 대우를 이루고 있으며, 장회 제목에는 다섯 명의 주인공 이름이 모두 표기되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 언급했듯이 <오선기봉>은 <오로봉기>와 비교했을 때 내용상의 차이가 있는데,¹⁸⁾ 장회 제목 역시 내용상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예컨대 <오선기봉>의 제5회 ‘白花薰溺水全節’과 제11회 ‘花燭夜感舊論情’은 <오로봉기>에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오선기봉>에서는 제5회의 ‘백화연이 황태을에 대한 정절을 지키기 위해 강물에 투신했다가 복비의 도움으로 살아난 대목’과 제11회의 ‘남녀주인공들이 모두 만나서 정식으로 혼인을 올리는 대목’이 <오로봉기>에 비해 확대되어 있는바, <오선기봉>의 ‘白花薰溺水全節’과 ‘花燭夜感舊論情’은 <오선기봉>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오선기봉>의 후반부는 <오로봉기>와 비교했을 때, 축약과 삭제가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오로봉기>의 제14회~제16회의 분량이 축약·삭제되어 <오선기봉>의 제12회에 압축되어 있다. 특히 현천흥이 환술을 펼치는 대목은 <오로봉기>에는 제14회~제15회에 걸쳐 꽤 길게 전개되는데 <오선기봉>에서는 모두 삭제되어 있어, 상당한 개작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오로봉기>·<황태을전>·<오선기봉>의 장회 제목의 차이를 살펴보자.

黃處士禱山生子 石道作詩遺客(<오로봉기>, 1면)

황처사가산에빌어? 들났코 석도인이글을씻쳐접직 허대[黃處士禱山生子 石道人遺書接客](<오선기봉>, 369면)

제1회 장회 제목으로 <오로봉기>에 ‘人’ 혹은 ‘士’ 한 글자가 누락되어 있다. 반면 <오선기봉>은 일곱 자씩 정확한 대우를 이루고 있다. <오로봉기>의 후구에 글자 하나가 빠진 것이 확실하지만, 필사자의 실수로 누락한 것인지, 모본이 원래 상태가 그러하여 필사자가 보고 쓴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문맥상 <오선기봉>에서와 같이 ‘人’이 누락된 것으로 추측된다.

18) 차충환, 앞의 책, 15~40면.

제2회에서도 <오로봉기>의 장회 제목 표기 문제가 나타난다.

老夫妻一東一西 兒將成能文能武(<오로봉기>, 5면)

늬은부처가일동일셔히고 아히장상이능문능무하다[老夫妻一東一西 兒將相能文能武](<오선기봉>, 375면)

<오로봉기>와 <오선기봉>의 장회 제목 후구를 보면, <오로봉기>는 ‘成’으로 <오선기봉>에는 ‘相’으로 표기되어 있다. 장회 제목이 대우를 이루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相’이 적절하다. ‘成’과 ‘相’은 자형이 완전히 달라서 필사자가 두 글자를 혼동하여 쓴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오로봉기>는 ‘成’으로 표기된 모본을 필사했거나, 필사자가 문맥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수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오선기봉>에는 ‘相’으로 바르게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오선기봉>이 저본으로 삼은 <오로봉기>에 ‘相’으로 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현전하는 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오로봉기>는 작가의 원본이 아니며, <오선기봉>의 저본이 된 <오로봉기>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이 아님을 뜻하는 것이다.

다음은 세 작품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 장회 제목이다.

訪寓舍公主見誠 入宮禁小姐陳懷(<오로봉기>, 45면)

방우사공쥬진성 팔궁금쇼저진회(<황태을전>, 하 17면)

궁금에드러가미숙녀가뜻을버풀고 황하를건너다가상셔가어버이를맞다[入宮禁淑女陳情 渡黃河尙書迎親](<오선기봉>, 422면)

<오로봉기>의 후구에는 ‘懷’, <황태을전>의 후구에는 ‘회’ <오선기봉>의 전구에는 ‘情’으로 표기되어 있다. <오로봉기>와 <황태을전>은 전구와 후구 모두 동일하므로 <황태을전>이 <오로봉기>를 번역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선기봉>의 ‘情’은 ‘회(懷)’와 의미 차이는 없지만 표기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오로봉기>, 순천뿌리깊은나무박물관 소장본 <황태을전>과는 직접적으로 영향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언급했듯이 순천뿌리깊은나무박물관 소장본 <황태을전>은 활자본 <오선기봉>이 출판된 이후 번역된 것이므로 <오선기봉>의 모본이

될 수 없으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오로봉기> 역시 활자본 <오선기봉>의 저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황태을전>의 ‘팔’은 ‘入’을 ‘八’로 오독한 것으로, 한문본을 번역하면서 나타난 오기이다.

동일한 장면에서 다른 표현을 사용한 부분도 발견할 수 있다. 다음은 황태을이 부모와 헤어지고 적장의 집에서 양육되다가 헤어진 부모를 생각하며 탄식하는 대목이다.

太乙 獨坐羈囿 歸思正滿 乃殫劍長嘆曰(<오로봉기>, 7면)

태을이 호울노 기창을 비기고 심각하니 마음이 황홀하야 칼을 들고 탄식 왈(<황태을전>, 상 19면)

홀노 난간에 의지하야 부모 심각하흔 마음이 심흔지라 이에 거문고를 당기여 일곡을 타고 질게 탄식하야 왈(<오선기봉>, 10면)

황태을이 난리 때 헤어진 부모를 그리워하는 대목으로, 이후 부모를 찾기 위해 떠나기로 결심하는 장면이 이어진다. 황태을은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한탄하며 돌아갈 것을 ‘탄검(彈劍)’에 빗대어 이야기한 것이다. ‘탄검’은 전국시대 제(齊)나라 재상 맹상군(孟嘗君)이 식객 풍환(馮驩)이 찾아왔을 때 푸성귀로 대접하자 풍환이 장검으로 박자를 맞추면서 <장협가(長鋏歌)>를 불렀다는 고사에서 인용한 것이다. <오로봉기>에서는 ‘彈’를 ‘殫’로 오기하고 있는데, 필사자가 자형이 비슷한 두 글자를 혼동한 것인지 모본의 영향인지는 알 수 없다. <황태을전>의 ‘칼을 들고’는 ‘殫劍’를 번역한 것은 아니며, <오선기봉>은 <오로봉기>·<황태을전>과 달리 ‘거문고를 당기다’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현전하는 <오로봉기>·<황태을전>·<오선기봉>이 상호간에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다음은 <황태을전>과 <오선기봉>은 유사하지만 <오로봉기>만 다르게 표현된 대목으로 백화연이 황태을과 헤어지기 전에 부른 노래이다.

楊柳折插君鞍 此日 相逢 何時復看(<오로봉기>, 21면)

버들을 썩거 그디의 안장에 붓치또다 오날 서로 이별이면 여는 씨에 다시 불가(<황태을전>, 상 46면)

양류를 썩겨 그디에 안장에 쏘느니 오날 리별하면 뒤 괴약이 어니말고(<오선기봉>, 393면)

<오로봉기>는 ‘逢’으로 <황태을전>과 <오선기봉>은 ‘이별’로 표기했다. <오로봉기>만 ‘만남’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모본이 그러한 것인지 필사자가 임의로 바꾼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그런데 <황태을전>이 번역본임을 생각하면 번역자 혹은 필사자가 임의로 ‘이별’로 바꾼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황태을전> 보다 앞서 간행된 <오선기봉>에도 ‘이별’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현전하는 <오로봉기>가 <황태을전>, <오선기봉>과 직접적인 영향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로봉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황태을전>과 <오선기봉>에서만 보이는 대목도 있다. 황제와 황후가 주계란의 혼사에 대해 대화할 때, 옆에서 듣고 있는 주계란의 모습을 묘사한 대목이 <오로봉기>에는 없으며 <황태을전>과 <오선기봉>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帝曰 行禮 彼欲必告父母而後定之 然聞其父母相失 久矣 訪求之餘 婚日似遲 而彼既固請 朕不可違時 公主對曰(<오로봉기>, 31면)

황제 가로디 “혼례는 제가 부모을 보고 정헌다 하나 들은니 제의 부모을 일은 지가 오리라 차자보기로 말하면 혼일이 더디기로 제의 글이고 청헌난 일이 잇시니 짐이 었지 어기리오.” 공쥬가 황후을 모시고 안자서 잠이 든 듯하다가 다시 일어나 알의 왈(<황태을전>, 상 68면)

상이 곁아샤디 짐도 쏘헌 그 쏘이 잇시나 태을이 이제 부모를 차진 후 성례헛갓다 헛기로 짐이 임의 허낙헛고 텃하에 쥬셔햐야 황쳐스의 니외를 차지라헛얏시니 성혼홀 괴약은 아마 차만홀 듯헛도다헛시니 공쥬 | 엽헤 모셔 안자다가 공쥬이 곁하야 왈(<오선기봉>, 407면)

밑줄 친 부분들을 비교해 보면 <오로봉기>에는 ‘公主對曰’로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지만, <황태을전>과 <오선기봉>에는 공주가 옆에 앉아 있었다는 내용 등이 부연되어 있다. <황태을전>과 <오선기봉>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오로봉기> 원작에는 ‘公主’와 ‘對曰’ 사이에 부연된 서술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황태을전>에서 황제와 황후의 이야기를 듣는 공주의 행동을 ‘잠이 든 듯하다가’로 표현한 것은 다소 어색한데, <오선기봉>을 살펴보면 ‘공손히’로 되어 있다. <황태을전>의 필사자가 저본의 한자를 오독하여 ‘잠이 든 듯’으로 번역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으로 <오로봉기> 작품군의 서지 사항을 정리하고 장회 제목과 본문의 표현을 비교하여 이본 간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황태을전>은 <오로봉기>의 국문 직역본이며 <오선기봉>은 <오로봉기>의 개작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현전하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오로봉기>, 순천뿌리깊은박물관 소장본 <황태을전>, 국문 활자본 <오선기봉>은, 세 이본 상호간에 직접적인 영향 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결국 순천뿌리깊은박물관 소장본 <황태을전>과 국문활자본 <오선기봉>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한문본 <오로봉기>를 저본으로 삼아 번역하거나 개작한 것이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오로봉기>는 원작과 일정한 거리가 있는 전사본(轉寫本)인 것이다.

Ⅲ. <오로봉기(五老峰記)>의 창작 배경과 구성적 특징

1. 조선 후기 소설의 수용

<오로봉기(五老峰記)>는 19세기에 창작된 소설로 추정되는데, 이전 시기 소설 작품 및 소설 양식의 영향이 다수 확인된다. <오로봉기>는 적강구조, 가족의 이산, 남녀의 애정추구와 혼사장애, 여성영웅 등장 등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숙향전>과 <구운몽>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차충환은 <오로봉기>의 가족 이산 대목은 <숙향전>과 동일하고, 적강화소, 일대대의 결연 양상, 늙은 모티프, 여성인물의 성격 등은 <구운몽>과 유사하다고 했다.¹⁹⁾ 한의승은 <숙향전>의 가족의 이산과 <구운몽>의 남녀 결연담 중심의 내용, 등장인물 형상의 유사점을 들어, <오로봉기>가 <숙향전>과 <구운몽>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다.²⁰⁾ 한편 정지아는 남장을 통한 문제 해결, 예지 능력과 환술 능력 등 여성 영웅의 모습에 주목하여 여성영웅소설과의 관계를 논한 바 있다.²¹⁾ 여기서는 이상의 연구를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오로봉기>의 창작에 영향을 미친 소설 작품 혹은 양식에 대하여 살펴보되, 선행 연구에서 언급하지 않은 <강릉추월전>의 영향도 아울러 검토하기로 한다.

1) <숙향전>, <강릉추월전>의 수용

<숙향전>은 17세기 말에 창작되었으며, 조선 후기에 애독되었던 작품이다.²²⁾ <숙향전>은 여주인공의 고난과 신령들의 구원, 남녀주인공의 사랑과 시련, 선계의 모습에 대한 생생한 형상, 조선 후기 물질과 세태의 사실적 반영, 소외된 인물의 심리와 정서에 대한 곡진한 표출 등 흥미로운 요소가 많다.²³⁾ 이러한 요소들은 <숙향전>이

19) 차충환, 앞의 논문, 319~322면.

20) 한의승, 앞의 책, 206~207면.

21) 정지아, 앞의 논문, 29~40면.

22) 조희웅 · 松原孝俊, 「숙향전 형성연대 재고」, 『고전문학연구』 12, 한국고전문학회, 1997.

23) 이상구, 「후대소설에 미친 숙향전의 영향과 소설사적 의의」, 『고전과 해석』 24, 고전문학한문

오랜 기간에 걸쳐 관심을 받은 작품으로 자리잡는 데 일조했고, 후대 소설에서도 <속향전>의 수용된 대목을 찾아볼 수 있다. 판소리계소설인 <춘향전>·<심청전>·<흥부전>·<배비장전> 및 가면극 <봉산탈춤>의 대사 등에서 소재로 등장하기도 한다.²⁴⁾ 그만큼 <속향전>은 대중의 사랑을 받은 작품이며 후대 문학 작품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쳤는데, <오로봉기>에서도 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²⁵⁾

그날 밤 꿈의 오식구름니 일어나며 그 속으로 흥포관디흔 저문 선관니 옥홀을 쥐고 노력와 상셔 압해와 지비 왈, “나는 상제 압해서 근사흔든 티을선관이옵찌니, 천궁의 득죄하야 인간의 니치시미 갈 고슬 몰나 흐옵찌니, 마춤 디성스 부쳐 지시하거늘, 이리 왔스오니 어엿비 너기쇼셔.”(<속향전>, 75면)

<오로봉기>의 남주인공은 <속향전>의 남녀주인공의 인물 형상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속향전>의 남주인공 이선의 이름은 ‘선(仙)’이고 자는 ‘태을(太乙)’인데, <오로봉기>의 남주인공의 이름은 ‘태을’이고 자는 ‘몽선(夢仙)’으로, 두 작품의 남주인공 이름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속향전>과 <오로봉기>는 남주인공의 탄생 장면에서도 유사한 점이 발견된다.

“우리는 히산 가음아는 선례러니, 상셔게 명를 받즈와 아기 낫는 양를 보라 왓습찌니, 이 아기 부인은 남양짜에서 나시기로 밧비 가너이다.”(<속향전>, 76~77면)

처사가 외당에서 잠깐 잠이 들자 눈썹이 길고 머리카락이 짧으며 스스로를 남극노인이라 일컫는 노인이 나타나 말했다. “근자에 오성이 상제께 죄를 얻어 인간세상으로 내려왔는데, 그중 한 명이 태을이고 이 아이입니다. 다른 별 또한 사방에 있으며 배필로 정할 것이니 존군께서 이 아이를 잘 기르십시오.”[處士在外堂假寢 有一老翁 眉長髮短 自稱南極老人 抱小兒而降于庭曰 近者五星 得罪於上帝 暫謫於人間 而其一太乙 卽此兒也 其他星 亦在四方 以定配匹 尊君 善養之](<오로봉기>, 1면)

인용문은 <속향전>의 남주인공 이선의 태몽과 탄생, <오로봉기> 황태을의 태몽과 탄생 대목이다. <속향전>에서는 이상서의 꿈속에 태을선관이 나타나 자신이 득죄하여 지상에 내려와 당신의 아들로 태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아이가 태어날 때 선녀들이

학연구학회, 2017, 150면.

24) 성현경, 『한국옛소설론』, 새문사, 2018, 137면.

25) 본고에서 <속향전>은 다음의 책을 인용하되 인용문 뒤에 작품명과 면수만 표기한다. 이상구 주석, 『일본 속향전·속영낭자전』, 문학동네, 2018.

나타나 부인의 해산을 돕고 가면서 이선의 짝이 정해져 있다고 말한다. 선계의 인물 이 등장하여 이선의 탄생과 배필이 정해져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오로봉기>에서는 황처사의 꿈에 남극노인이 나타나 태율이 적강했으니 잘 키우라고 하며 배필로 정해진 다른 별이 태어났다고 말한다. <오로봉기>에서 황태율의 태몽과 탄생 장면은 <숙향전> 남주인공 이선의 탄생 장면을 수용한 것으로, 남녀주인공의 결연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로봉기> 황태율의 유년 시절은 <숙향전> 숙향의 어린 시절과 매우 흡사한데, <오로봉기>와 <숙향전>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화소는 도사의 예언, 전란과 부모와의 이별, 도적에게 도움을 받는 대목 등이다.

왕균니 쇼왈, 사람의 팔자는 정치 못하려이니와, 니 아기 샤쥬를 보오니 반드시 다숫 살이면 니웃 나무입히 바람의 부칠 적의 부모를 일코 정처 업시 단이다가 십오세 전의 다숫 번 죽을 익을 지낙고, 사라나면 십칠세에 부인을 봉하고 니십세에 부모를 다시 만나 티평으로 누리다가, 칠십이면 세상 인사를 정치 못하리라.(<숙향전>, 20~21면)

하루는 승산에서 온 도사가 처사를 보고 말했다. “연전에 기이한 기운이 그대의 집안에 내려왔으니 귀자가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 아이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처사가 태율을 데려와 도사에게 보여주니 탄식하며 말하였다. “어떻게 오겠는가 천하가 어지러운지 오래인데, 하늘이 장차 너를 써서 물을 건너는 노로 만들 것이다.” 처사에게 말했다. “이 아이는 용모가 훌륭하고 골격이 신이하며 귀는 분을 바른 것과 같고 눈은 별과 같으니 영원토록 영화와 귀함을 누릴 상이며 오복을 겸비한 아이입니다. 비록 그러하나 십오 년을 슬하에서 떨어져 사는 액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一日有道士 自嵩山來 見處士曰 年前 有奇氣降于君家 貴子生乎 願一見之 處士出太乙示之 道士嘆曰 胡爲乎來哉 天下亂久矣 天將用汝作濟楫 謂處士 此兒 容光玉成 骨格神秀 耳如塗粉 眼若晨星 可謂終身榮貴之像 五福兼備之人 雖然 十五年離膝之厄 不能免矣](<오로봉기>, 2면)

<숙향전>에서는 상자 왕균이, 숙향이 부모를 잃고 15세 전에 5번의 시련이 있을 것임을 말해 주고, <오로봉기>에서는 승산도사가, 황태율이 15년 동안 부모와 이별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숙향전>에서는 숙향의 인생 전반에 걸쳐 5번의 시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만, <오로봉기>에서는 황태율의 관상을 보고 영웅적 행보를 예측하게 할 뿐 <숙향전>처럼 구체적으로 예언하지 않는다. 한편 <숙향전>에서는 숙향의 모친이 왕균의 예언을 듣고 숙향의 이름과 사주를 쓴 종이를 비단 주머니에 넣어 숙향에게 주는데, <오로봉기>에서는 황태율이 부모와 헤어질 때 그 모친

이 황태을에게 이름과 사주를 수놓은 비단을 준다.

“어려서 부모를 일하면 비록 사라난들 부모를 잊지 않으며, 우리들 저를 잊지 알이오?” 하고, 가는 길 곳곳에 일흔과 자(字)와 년월일시를 쓰고. 그 모친 옥지환 훈 싹을 버서 헌디 너허 웃고롬의 치와 두니라.(〈숙향전〉, 21면)

태율이 곧 비단 주머니에서 며 치의 수놓은 비단을 꺼내 상사께 드리며 말했다. “물건이 비록 보잘 것 없으나 노모께서 이별할 때 준 것으로 어머님의 손길이 아직까지 남아 있으니 소생의 보물은 이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또 길일을 택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폐백을 드리는 것은 초초하나 소생이 영저와 오늘 만나 한 마디 말로 결정하였으니 또한 등한한 기회가 아닙니다. 이를 기회로 예를 행해도 무방할 듯합니다.” 상사가 더욱 좋아하며 그것을 받아 열어서 안을 보니 채색선으로 황태을이라는 석 자와 생년월일시가 수놓아 있었다.[太乙卽自錦囊 出雲紋錦數寸 進於上舍曰 物雖薄略 老母臨別所贈 手澤猶存 生之爲寶 莫重於此矣 且不擇良日 旋卽奉幣 事涉草草 而吾與令姐 遇於今日 一言決定 亦非等閑期會 因此爲禮 恐無妨矣 上舍尤善 乃親受之 展觀其內 則以綵線 繡出黃太乙三字及所生年月日時](〈오로봉기〉, 15~16면)

〈숙향전〉에서는 숙향의 모친이 “어려서 부모를 일하면 비록 사라난들 부모를 잊지 않으며, 우리들 저를 잊지 알이오?”라고 말하면서 숙향에게 이름과 사주를 쓴 비단 주머니를 주는데, 비단 주머니는 숙향이 부모와 상봉했을 때의 신물(信物)이 된다. 반면 〈오로봉기〉에서는 황태을이 이름과 사주를 수놓은 비단을 현천홍과 정혼할 때 납페로 사용함으로써 현천홍이 가지고 있게 되며, 황태을과 부모의 상봉은 현천홍이 황태을의 꿈에 나타나 부모와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전란이 일어나 주인공이 가족이 헤어지게 되는 대목은 〈숙향전〉과 〈오로봉기〉가 상당히 유사하게 전개된다.

너는 저 바회 밋터 잇거라. 니일 와 다려가마하고, 족박의 밥을 담아주며 김전 부처 디성통곡알, 숙향아, 비곱흐거든 니 밥 먹고, 목마르거든 니 박으로 저 물을 써 먹어라 하고 초마 바라고 가지 못흐나 도적니 쫓츠와 샤람를 썩은 풀 버히듯흐거늘, 혈이 업서 숙향를 도적 중의 발리고 다라나려 하니, 숙향니 저희 모친 치마를 붓잡고 통곡알, 어마야, 나도 함기 가읍사이다. 아바야, 나도 헌디 가셔이다하고 한 손을 오는 어위 초마를 붓잡고 한 손으로는 아뵤 혈이 썩를 더위 잡고 히음없시 울고 늦기며 함게만 갖고 이걸하며 보치는 거슬 김전 부처 차마 써나지 못홀 터니로되, 도적니 거의 당전헌지라 황겁흐야 억질로 숙향으 손목을 버리집어 안아

다가 바회 틈의 안치고, 짜라 나오지 못하게 큰 돌노 그 압흘 막고 얼굴만 녹미러 뵈게 혼 후의 족박의 밥 담은 거슬 억지로 손의 쥐고 기유하야 달니며 왈 니 쌀 속향아 여기셔 놀고 잇시면 저근드시 어뫼하고 집사 가서 과실 갖쌔주마 하고 일은 후는 돌쳐서며 부인 장씨를 호통하여 가기를 지촉하니, 장씨도 혈이없서 디성통곡하며 김전의게 잇슬이여 가며 다시곰 도라보니, 속향니 바회 틈으로 얼굴만 드러니고 혼 손에는 어뫼 주든 밥 다문 박아지를 들고, 한 손으로 눈믈를 씨스며 디성통곡하야 우다가 나중의는 어미만 부르며 목니 머혀 우는 쇼리 층층머러져 가거늘 부인 장씨 참아 가지 못하고 속향 잇는 곳만 도라보면 울기만 하니(<속향전>, 23~24면)

변씨가 부득이하게 태을을 길 곁 숲 아래에 두고 한 그릇의 밥과 한 바가지의 물을 주면서 말했다. “너는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부디 울지 말고 숨어서 기다리면 내가 마땅히 다시 와서 데리고 갈 것이다.” 또 품속에서 수놓은 몇 치 비단을 꺼내고 옷깃을 터트려 넣어 봉해주며 말했다. “너는 모름지기 이것을 숨겨두고 잃어버리지 마라.” 말을 끝내기도 전에 적병이 이미 이르니 처사가 변씨를 이끌고 급히 달아났다. 이때 태을의 나이가 겨우 세 살이었는데 울며 따라가며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버리고 어디고 가시는가?” 변씨가 걸음걸음마다 돌아보니 간장이 끊어지고 눈물이 흐르니 앞길을 분간할 수 없었다.[卞氏不得已置太乙於路傍叢林下 與一盂飯一瓢水 □□曰 汝飢則食 渴則飲 慎勿啼哭 潛伏以待 吾當復來而率去矣 又自懷中 出文錦數寸 坼衣領而封之曰 汝須藏此而勿失 語未終 賊兵已及 處士携卞氏 蒼黃遁去 時太乙年才三歲 且哭且隨曰 父兮母兮 棄我何去 卞氏 步步回顧 肝腸寸斷 涕淚橫流 不能分前路矣](<오로봉기>, 3면)

고전소설에서 전란으로 인한 가족의 이산은 흔히 나타나는 장면이지만 이산의 정황을 <속향전>처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은 거의 없다.²⁶⁾ <속향전>의 구체적 상황 묘사는 인물들의 행동과 발화를 통해 이루어지고 <오로봉기> 또한 <속향전>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란을 피해 가족을 데리고 도망가는 중 도적의 추격을 받게 된다는 점, 기력이 다해 자식을 데리고 갈 수 없어 자식을 버리고 가려는 아버지가 등장한다는 점, 울면서 같이 가자하며 부모를 붙잡고 매달리는 자식이 있다는 점, 남편의 재촉에 아이를 버리고 가지만 남겨진 아이를 돌아보며 울면서 갈 수 밖에 없는 어머니가 나타난다는 점이 거의 동일하다. <속향전>의 “속향아 비곱흐거든 니 밥 먹고 목마르거든 니 박으로 저 물을 씨 먹어라”라는 말과 <오로봉기>의 “너는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부디 울지 말고 숨어서 기다리면 내가 마땅히 다시 와서 데리고 갈 것이다.”라는 말은 구체적인 표현까지도 유사함을

26) 차충환, 앞의 논문, 321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부모와 헤어진 후 두 작품의 전개는 다르다. 속향과 황태율은 부모와 헤어지고 도적들에게 발견된다. 속향은 늙은 도적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살아나게 되고 유리걸식하다가 후토부인의 도움으로 장승상댁 수양딸이 되지만, 황태율은 도적이 데리고 가서 양육한다. 이 지점에서 <오로봉기>는 <속향전>과 다르게 전개되는데, 남주 인공이 도적 집단에서 양육되는 내용은 <강릉추월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²⁷⁾

각설 잇새의 울남도 도적놈이 탐물차로 단니다가 맛참 운학을 보고 다려다가 길을시 그 도적의 성명은 자수빅이라 운학의 성명얼 고쳐 장히롱이라 한니 슬프다 운학은 삼시유아라 저의 성명 곤칠 줄 어이 아리오 시월이 여류하야 히용의 나이 십 시의 이르러 골격이 풍우하고 용모 청수하여 천신가질이 불분장이라 수빅이 극히 사랑하야 저의 도적놈 중 일등규절을 골라니 성취하니 처부의 성은 여천추라(<강릉추월전>, 287~288면)

적장이 말했다. “부모가 너를 버렸는데 너는 어찌 기다리고 있느냐. 나를 따라 가는 것만 못하다.” 도적 무리에게 명령을 내려 뒷수레에 실으니 태율이 깜짝 놀라 수레에서 떨어졌다. 적병이 좌우에서 붙잡아 움직일 수 없게 하고 혹은 실과로 달래고 병기로 위협했다. 다시 낙수에 도착하니 하류에 이미 배가 갖춰 있었다. 약탈한 전곡과 여성 장신구들 다 실어 산처럼 쌓아 두었다. 배를 지키는 자가 여러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적장이 친히 태율을 안고 배에 오르니 바람이 일어나고 물이 움직여 순식간에 천리를 갔다. (….) 적장이 태율에게 말했다. “너는 이미 여기에 왔으니 너의 부모를 생각하지 마라.” 별당에 거쳐하게 하고 매우 아꼈다. 시비에게 명하여 양육하게 했다. 태율이 슬피 울며 먹지도 않고 매일 부모를 부르며 서럽게 울자 적장이 불쌍히 여겨 또래 아이를 많이 모아 놀게 했다. 세월이 지나 부모 생각이 점점 사라지니 책과 검을 주었으나 즐거워하지 않았다. 바라는 바를 물으니 대답했다. “만인과 대적하는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적장이 기뻐하며 비로소 방법을 가르쳤다. 태율은 총명함과 남다른 지혜로 무릇 비밀스러운 점을 만나더라도 한번 보면 문득 이해하고 자연 깨달아 가르침을 적장이 또 적장이 경학을 권하니 태율이 부득이 서사를 섭렵해서 모두 깨우치니 제자백가와 고금시서의 글에 정통하지 않음이 없었다.[賊將曰 父母棄汝 汝何待爲 不如從我而去 命其徒屬 載於後車 太乙驚惶罔極 屢墜車下 賊左右抱持 不得動搖 或誘之以果 劫之以兵 復至洛水 已具船於下流 盡載所略錢穀及婦女翫好之物 積置如山 守船者企待累日矣 賊將親抱太乙 登舟而下 風起水動 一瞬千里(…)賊將 謂太乙曰 汝既到此 毋汝父母爲念也 遂處之別堂 愛之甚懇 命侍婢乳養 太乙猶悲啼不食 日呼父母 賊將 憐之 多聚伴兒 游戲萬方 日月既多 念懷稍弛 授之書劍 俱不肯爲 問其所欲 則曰 學敵萬人 賊將大喜 始教兵法 太乙 本以聰明絕類 智計殊人 凡當秘密 一覽輒解

27) 본고에서 <강릉추월전>은 다음의 책에 수록된 자료를 인용하되 인용문 뒤에 작품명과 면수만 표기한다. 김재웅, 『강릉추월전 작품군의 종합적 이해』, 보고서, 2008.

六韜三略 天文地理 自然知覺 不待教令 賊將 又勸講經術 太乙 不得已涉獵書史 皆已點會 凡諸子百家言 古今詩書之文 無不精通】(<오로봉기>, 6~7면)

인용문은 <강릉추월전>의 이운학과 <오로봉기> 황태율이 부모와 헤어진 뒤에 도적을 만나게 되고 도적 집단에서 양육되는 대목이다. <강릉추월전>의 이운학은 ‘장해룡’이라는 이름으로, 도적의 아들이 되어 살아가고, 도적의 딸 어소저와 결연을 맺는다. 한편 <오로봉기>의 황태율은 도적이 처음부터 사위로 삼기 위해 데리고 왔던 것인데, 역시 도적의 딸 청운학과 결연을 맺게 된다. 이처럼 <강릉추월전>과 <오로봉기>는 주인공이 도적에게 양육되고 도적의 딸과 결연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바, <오로봉기>의 창작에 <강릉추월전>이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구운몽>의 수용

<오로봉기>는 남주인공 황태율은 전란이 일어나 부모와 헤어지고 도적의 도움으로 성장한 뒤 부모를 찾아 길을 떠나는데, 그 과정에서 4명의 여성들과 결연한다. 그런데 이러한 일대다의 결연 구도는 일찍이 <구운몽>에서 보였던 것이다. <구운몽>은 서포 김만중이 17세기 후반에 창작한 작품으로, 수도승이었던 성진이 꿈속에서 양소유로 태어나 입신양명을 이루고 그 과정에서 2처 6첩과의 이상적인 애정관계를 구현하지만 세속의 욕망을 다 이루고 무상함을 느끼는 순간 꿈에서 깨어나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는 내용이다. <구운몽>의 대중적인 인기는 폭넓은 독자층 만들고 조선 후기 소설에서도 <구운몽>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되거나 유사한 화소가 등장하기도 하는데, <오로봉기>에도 서사 전개와 인물 형상에서 유사한 점을 찾아볼 수 있다.

<구운몽>의 제10회 후반부부터 제12회까지는 여주인공들이 서사의 중심이 되는데, 이소화가 정경패를 찾아갔다가 함께 궁에 들어가 자매가 되는 내용이다. 그리고 제13회에 이르러, 양소유가 원정에서 돌아와 정식 혼례를 치른 뒤 지연되었던 만남이 모두 이루어지게 된다.²⁸⁾ <오로봉기>에서도 이와 유사한 서사 전개가 나타난다. <오로봉기> 제10회 후반부부터 제12회까지는 여주인공들이 서사의 중심이 되는데, 주계란이 청운학·백화연·현천홍을 입궁시키고, 지연되었던 만남이 모두 이루어진다.

28) 정길수, 『구운몽 다시 읽기』, 돌베개, 2010, 151~152면.

<구운몽>에는 8명의 여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그들의 이름은 진채봉(秦彩鳳)·계섬월(桂蟾月)·정경패(鄭瓊貝)·이소화(李簫和)·가춘운(賈春雲)·적경홍(狄驚鴻)·심요연(沈裊烟)·백능파(白凌波)이다. <오로봉기>의 여주인공은 4명이며, 이름은 청운학(靑雲鶴)·현천홍(玄天鴻)·백화연(白花燕)·주계란(朱桂鸞)이다. <오로봉기>는 <구운몽>에 비해 여성인물의 수가 적은데, 이에 <오로봉기> 여성인물들의 서사는 <구운몽>의 여성인물들의 서사가 혼합된 양상으로 나타난다.

<오로봉기>의 백화연은 <구운몽>의 진채봉과 계섬월의 특징을 갖고 있다. 백화연은 기녀이며 황태율과 백화연의 결연 양상은 <구운몽>의 양소유와 계섬월, 진채봉의 결연이 혼합되어 있다. 백화연과 황태율이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과 양소유가 진채봉과 만나는 장면이다.²⁹⁾

시 읊는 소리가 맑고 시원해서 쇠나 옥돌로 만든 악기에서 나는 소리 같았다. 그 소리가 봄바람에 실려 누각으로 올라가니, 누각 위의 미인이 바야흐로 봄잠에 들었다가 시 읊는 소리를 듣고 놀라 깨어났다. 창을 열고 난간에 기대어 이리저리 바라보다가 양소유와 눈이 마주쳤다. 여인의 구름처럼 풍성한 머리카락은 귀밑에 드리웠고 옥비녀는 반쯤 기울었는데, 봄잠이 부족해서 나른해하는 모양이 꾸밈없이 수려해서, 그 모습을 말로도 표현하기 어렵고 그림으로도 그려내기 어려웠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구운몽>, 40면)

시 읊기를 마치자 미인이 창문을 열고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았다. 두 눈이 서로 마주치니 꽃같은 자태와 옥같은 모습에 자기도 모르게 깜짝 놀랐다.[吟訖 美人 開戶尋聲 兩眸交值 花姿玉貌 不覺□驚](<오로봉기>, 18면)

<구운몽>에서 양소유가 <양류사>를 읊자 진채봉이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 서로 눈이 마주치는 대목, <오로봉기>에서 황태율이 시를 읊는 소리를 듣고 창문을 열어 밖을 바라보던 백화연과 눈이 마주치는 장면이다. 남녀주인공이 시를 매개로 하여 눈빛이 마주친다는 설정이 유사하다.

<오로봉기>의 백화연은 기녀로, <구운몽>의 기녀 계섬월과도 유사하다. 백화연과 계섬월은 모두 훌륭한 군자를 만나 몸을 의탁하기를 바라며, 남주인공을 만났을 때 결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로봉기>의 주계란과 <구운몽>의 이소화는 모두 공주이며 황제의 주도로 결연이

29) 본고에서 <구운몽>은 다음의 책을 인용하되 인용문 뒤에 작품명과 면수만 표기한다. 정길수 옮김, 『구운몽』, 2017.

진행된다. <오로봉기>의 황태일은 현천홍과, <구운몽>의 양소유는 정경패와 이미 정혼을 했기 때문에, 황태일과 양소유는 부마가 되는 것을 거절한다. 이처럼 두 작품에는 늙은 화소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여주인공인 주계란과 이소화에 의해 해결되고 있다.

<오로봉기>의 현천홍은 <구운몽>의 정경패와 비슷하다. 정경패와 현천홍을 소개하는 대목을 살펴보자.

정사도는 다른 자녀 없이 오직 정경패 한 사람을 길렀다. 최부인이 해산하면서 정신이 혼미할 때 선녀가 명주 한 날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소저를 낳았기에 이름을 경패라고 지었다. 용모와 재주와 덕이 세상 사람과 같지 않아서 걸맞은 이를 찾기 어려웠기에 비녀 꽃을 나이가 되었지만 정혼한 곳이 없었다.(<구운몽>, 83면)

늦게야 딸 하나를 두었는데 아름답고 고운 자색이 세상에 짝이 없었다. 또 성품이 매우 총명하여 세상만사에 정통하지 않음이 없었는데 천지소장의 이치와 음양변화의 기밀을 더욱 잘 샅폈다. “상사가 기상이 뛰어남을 보고 이름을 천홍이라 하였고 10살이 되기 전에 모부인이 세상을 떠나니 집안의 모든 일을 소녀가 스스로 지휘하고 한 가지도 누락함이 없었다. 상사가 기특히 여기고 더욱 사랑하여 일찍이 사방에 매파를 보내 신랑을 미리 살펴보았다.[晚有一女芳資艷色 世無其雙 又性聰慧絕倫 千百萬事 無不精通 尤善觀天地消長之理 陰陽變化之機 上舍見氣像飄逸 名曰天鴻 十歲前 母夫人捐世 家間凡節 小姐親自指揮 百無遺一 上舍奇愛益深 嘗遣媒約於四方 預占郎材](<오로봉기>, 12면)

인용문에서 보이듯이 <구운몽>의 정경패와 <오로봉기>의 현천홍은 벌열 가문의 무남독녀로 태어났고 어린 시절부터 특별함을 지니고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구운몽>과 <오로봉기>에서 여주인공들의 문재를 시험하는 대목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구운몽>에서 황후가 정경패와 이소화, 그리고 진채봉의 문재를 시험하는 장면이 있는데, <오로봉기>에서도 청운학과 현천홍, 백화연 문재를 시험하는 대목이 나타난다.

태후가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내가 너희 두 사람의 혼사를 정하는데 까치가 꽃 위에서 지저귀니, 좋은 조짐이로구나! ‘벽도화 위에서 까치가 지저귀는 소리’를 시제로 삼아 칠언절구 한 편을 짓되 시 속에 너희들이 정혼하는 뜻을 담아 보이도록 해라.”(<구운몽>, 236면)

태후가 진채봉에게 말했다. “두 딸의 혼사가 정하고 까치의 길조가 있기에 각각 시를 지었는

데, 이제 중서도 돌아갈 곳을 얻었으니 시 한 수를 지을 수 있겠느냐?”(<구운몽>, 247면)

유모가 대답했다. “내전에서 교지를 내렸는데, ‘국가에 경사가 있으니 모든 백성에게 다행이다. 경대부부터 아래로는 사서인까지 멀고 가까움을 따지지 말고 각각 시를 올려 아름다움을 칭송하고 시제의 뜻은 황상서가 공을 이룬 것을 위주로 하며 마지막 구에 시인이 생각하는 일을 덧붙여서 황제의 뜻에 맞으면 천금으로 상을 내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소저도 지어서 보내는 것이 어떠합니까?” 소저가 웃으며 말했다. “천금의 상을 내가 어디에 쓰겠느냐? 제의 외에 또 자신의 뜻을 덧붙이면 상 밖에 상이 있지 않겠느냐?” 이에 두 남자와 함께 얼마간 묵묵히 읊다가 시 세 수가 완성되니 유모에게 주며 말했다. “가서 사람들의 시와 섞어서 올려라.” 이때 공주 직접 시문을 살펴서 우열을 논하고 높음과 낮음을 정하니 의도가 따로 있었기 때문으로 거둔 시가 천 여 장에 이르렀으나 하나도 마땅한 것이 없었다. 가장 늦게 시 세 수가 있었는데 시어가 매우 맑고 필체가 정묘하였다. [乳媪對曰 自內殿下旨曰 國家有慶 是兆民之幸 自卿大夫以下至士庶人 無問遠近 各獻詩頌美 題意則以黃尚書成功爲主 且末句 各附詩人所懷之事 而有稱聖旨 則以千金 賞之矣 姐姐亦製送如何 小姐笑曰 千金之賞 吾安用 題意之外 又附己意 無乃有賞外之賞耶 乃與兩娘 移時沈咏 三詩俱成 授乳媪曰 往雜於衆人之詩而納之 時公主 親考詩文 論其優劣 定其高下 蓋意有所在 故收卷至千餘張 而無一稱愜 最晚有詩三首 而詞甚清婉 筆極精妙](<오로봉기>, 41~42면)

<구운몽>과 <오로봉기>의 여주인공들의 문재를 시험하는 장면으로 구체적인 서술과 인물들의 처한 상황은 차이가 있다. <구운몽>은 황후가 정경패·이소화·진채봉과 양소유의 혼인을 허락한 뒤에 이 세 명의 여주인공들에게 시 짓기를 명하여 문재 능력을 평가하고 있는 반면에, <오로봉기>에는 청운학·현천홍·백화연이 궁에서 내려온 명에 따라 시를 지어 바치고 주계란이 시문을 살펴 가장 아름다운 시 세 수를 발견했다고 서술되어 있다. 인용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주계란이 발견한 시 세 수는 청운학·현천홍·백화연의 시임을 알 수 있다. <구운몽>과 <오로봉기>의 시 짓기 화소는 여주인공들의 뛰어난 문학적 재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오로봉기>가 <구운몽>의 시 짓기 모티프를 활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으로 <구운몽>과 <오로봉기>를 비교해 보았다. <오로봉기>는 서사 구조와 인물 형상 등에서 <구운몽>과 매우 유사한바, <오로봉기>의 작가가 작품의 창작 과정에서 <구운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여성영웅소설의 수용

<오로봉기>의 여성주인공은 청운학·현천홍·백화연·주계란 4명이다. 그중 가장 핵심 인물인 현천홍은 여성영웅소설의 여주인공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성영웅소설에서는 대개 여주인공이 부모의 죽음 또는 부친이나 정혼자의 유배로 인해 도피하거나 도로에 유리하면서 최초의 고난을 경험하고 이 고난은 여주인공이 학문과 무예를 습득하여 과거에 급제하고 전공을 세우는 계기가 된다. 부친이나 정혼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발언권을 얻기 위해서는 국가에 공훈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공을 세운 후 여성영웅은 천자에게 표를 올려 자신이 여자임을 밝히며 죄를 청하고 부친이나 정혼자의 명예 회복을 청하게 되는 이 과정에서 여성영웅은 심적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³⁰⁾ 이러한 서사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여성주인공들의 ‘남장’이 필수적으로 나타난다. 현천홍의 일화에서도 남장 모티프를 바탕으로 하는 여성영웅소설의 특징이 나타난다.

남장 모티프는 여성영웅소설에서 여성이 남성으로 인식되어야만 할 수 있는 행위들을 가능하게 해준다. 남장 모티프는 <오로봉기>의 여주인공들 중 현천홍에게만 세 번에 걸쳐 나타난다. 현천홍의 남장은 일시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지속성이 없으며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없다. 그래서 <이대봉전>, <홍계월전>, <방한림전>의 여성주인공들과 달리 성정체성 혼란을 겪지 않으며, 정체가 탄로 나게 되어도 큰 문제가 없다.

여성영웅소설에서 남장 모티프는 여성들이 늑혼 위기에 몰렸을 때 많이 나타난다. 다음은 <이대봉전>과 <오로봉기>에서 장애황과 현천홍이 남장하는 장면이다.

수건으로 목을 미어 자결코자 허거날, 난향이 위로 말, “소제난 잠간 진정허옵소서. 소제 만일 계양허야 죽을진디 부모와 낭군의 원수를 닐라셔 감사오릿가? 소비 소제의 의복을 입고 안저 닷가 소제 환을 감당허린니, 급피 남복을 환칙허시고 돈장을 너머 환을 피허소서.” (….) 직시 남복을 가초고 사당의 하직허고 후원 담을 너머 동산의 올라서니 창만한 달빛 아래 언니 고설 행허리요. 셔남을 브리보고 정체업시 가난 신세.(<이대봉전>³¹⁾)

소제가 크게 기뻐하며 유모에게 몰래 상선 한 척을 사서 금과 비단을 싣고 나무가 우거진 곳에 숨기게 하고 저녁이 되자 남복하고 유모와 함께 물가로 갔다. 장차 배에 오르려고 하다가 북쪽을 향해 울며 멀리 상사에게 절하며 말했다. “부부의 일은 중요하고 부녀의 은혜는 가벼우니 외로운 배로 만 리의 여정에 떠나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절을 마치고 물길을 따라 남쪽

30) 최지녀, 「여성영웅소설의 서사와 이념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14, 36면.

31) 신해진 역주, 『완판방각본 이대봉전』, 보고서, 2018, 162면.

으로 갔다.[小姐大喜 因使乳媪 潛買商船一隻 多載金帛 泊於蒙密之處 乃夜裝男服 與乳媪 間行至水將欲乘船 又北向呼泣 遙拜於上舍曰 伉儷義重 父女恩輕 孤舟萬里 有去無歸 拜畢 順流南下](<오로봉기>, 35면)

<오로봉기>에서 부모를 찾으러 떠난 황태율이 돌아오지 않자 현상사는 현천홍을 장어사의 아들과 혼인을 시키려고 하는데, 현천홍은 늑혼을 피하기 위해 그날 밤에 남장을 하고 가출하는데, 이것이 현천홍의 첫 번째 남장이다. 늑혼을 피하기 위한 남장은 <이대봉전>에서도 나타난다. <이대봉전>을 보면, 간신 왕희의 참소로 이대봉 부자가 유배를 가는데, 그로 인하여 여주인공 장애황은 정혼자인 이대봉과 헤어져 혼인하지 못하게 된다. 왕희가 자신의 아들 왕석연을 장애황과 혼일시킬 계략을 꾸미자, 실절과 늑혼의 위기에 몰린 장애황은 시비 난항의 조언을 따라 남장하고 도주하여 늑혼의 위기에서 벗어난다.

여성영웅소설에서 남성보다 뛰어난 여성의 영웅적 능력은 공적 영역에서 발휘된다. 현천홍의 두 번째와 세 번째 남장은 국가의 위기라는 공적인 상황에서 일어난다.

다음날 남복을 하고 스스로 하복의 유생이라 하면서 궁으로 가서 상소를 올리기를 제가 겨우 순리에 어긋난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근래에 별의 형상을 보니 폐하께서 잠깐 궁을 옮기는 액이 있습니다.[明日 復着男服 自稱河北儒生 詣闕上疏 以爲臣粗識逆順 近觀星像 陛下 暫有離宮之厄](<오로봉기>, 37면)

한 사람이 천리도화마를 타고 팔척부운검을 들고 적진으로 들어갔다. 바람이 불고 번개가 치니 사람들이 그 왕래함을 분간함을 알 수 없었다. 적병이 미처 손을 쓸 겨를 없이 이미 모두 칼을 맞고 죽었다. 잠깐 사이에 다 베어버리고 갑옷을 벗고 말에서 내려와 머리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 또 안장에 손을 넣어 환매의 머리를 꺼내서 천자에게 드리며 말했다. “신이 복적을 취하느라 성상으로 하여금 놀라게 한 것이 많습니다.” 상이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상이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보니 황태율과 비슷했다. 이에 놀라서 물었다. “경이 명을 받들어 북쪽으로 정벌을 갔으니 몸이 만 리 밖에 있어야 하는데 어찌하여 어디에서 와서 여기에 왔는가?” 현천홍이 대답했다. 신은 황태율이 아니니 원래 북벌로 정벌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상이 또 놀라서 보고 말했다. 그러자 “공은 누구인가 대답했다.” “신의 성명은 현천홍입니다.”[有一人 乘千里桃花馬 提八尺浮雲劍 飛入賊陣 風馳電擊 人不能分其往來 賊兵未及措手 已皆受刃 不移時悉斬之 仍解甲下馬 頓首涕泣 又探鞍匣 出桓霸首級 獻於上前曰 臣爲取北賊致 致令聖上驚擾多時矣 上始乃定神熟視 似是黃太乙也 因驚問曰 卿 奉命北征 身在萬里 何從及此乎 對曰 臣非黃太乙也 素無北征事也 上又大驚熟視曰 然則公誰也 對曰 臣姓名玄天鴻](<오로봉기>, 38~39면)

첫 번째 인용문은 현천홍이 두 번째로 남장을 하고 상소를 올리는 대목이고, 두 번째 인용문은 현천홍이 황제를 구하기 위해 세 번째로 남장을 하고 가서 황제를 위기에서 구하는 대목이다. <오로봉기>에서 현천홍의 남장은 개인 혹은 국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로, 문제가 해결되면 현천홍은 남복을 벗고 여성의 일상으로 복귀한다. 그뿐 아니라 현천홍의 남장은 결국 남주인공 황태을과의 결연으로 이어지는바, 이 역시 여성영웅소설과 유사한 면모라 할 수 있다.

여성영웅 형상으로 여성 이인(異人)을 들 수 있다. 여성 이인은 자신의 지혜나 도술, 예지력 등의 비범한 능력을 얻기 위해 특별한 수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데, 그 능력 또한 어떤 구체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총괄하는 능력에 해당한다.³²⁾ 이인적 면모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작품에는 <박씨전>이 있다. 박씨는 신이한 능력으로 병든 말을 사서 되팔아 가산을 늘리고 이시백을 장원급제하게 만드는 등 집안에 도움을 준다. 그리고 호국의 군대가 쳐들어 왔을 때는 도술을 부려 물리친다. <오로봉기>의 현천홍도 이인적 면모를 지니고 있으니, 황태을과 재회하기 전에는 수도에 반란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위험을 알리는 상소를 올리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오로봉기>의 현천홍은 여성영웅소설 여주인공들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여성영웅소설은 애정과 결연의 요소가 강조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는데, 이는 여성이 남장을 하고 활약할 수 있는 대의명분 가운데 하나가 정혼자와 결연이기 때문이며 애정 모티프는 광범위한 계층의 독자층을 형성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³³⁾ 현천홍의 영웅적 특징은 여성영웅 인물의 남장모티프와 신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점을 수용하고 있을 뿐이며 애정을 완성시키는 장치로써 작용한다.

2. <오로봉기>의 구성적 특징

1) 가족의 이산과 결합

32) 이유경, 『고전문학 속의 여성영웅 형상 연구』, 보고서, 2012, 104~105면.

33) 최지녀, 앞의 논문, 65면.

가족의 이산과 결합은 고전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모티프이다. 앞에서 <오로봉기>의 가족의 이산은 <숙향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전란으로 인해 가족이 분리되는 것은 영웅소설의 일반적인 화소 중 하나로, 주인공이 가족의 결합을 위해 능력을 연마하며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주동적 삶을 살아가게 한다. 영웅소설에서 주인공에게 ‘가족의 결합’은 중요한 과업이다. 하지만 <오로봉기>에는 황태을의 영웅적 면모가 드러나기는 하나 대개의 영웅소설에 비해 그 분량이 적으며, 여주인공들과의 애정담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오로봉기>에서는 도적들이 마을에 침입했을 때 황처사가 가족이 모두 데리고 도적을 피해 도망가는 도중에 황태을을 버리고 간다. 이로 인하여 황태을은 도적에게 잡혀 도적에게 양육되고, 황처사 부부 또한 동서로 헤어진다. 헤어진 황처사 부부는 견우성과 직녀성을 만나 가족의 안위를 묻지만, 견우성과 직녀성은 곧바로 대답해 주지 않는데, 이에 황처사 부부는 황태을과 다시 만날 때까지 그곳에서 머물게 된다.

황처사는 어렵게 아들을 얻었지만 전란의 와중에서 자식을 버리게 된다. 이러한 비극적 상황은 독자에게 그들이 겪는 문제 혹은 겪을 수도 있는 문제들이 자신의 잘못은 아니라는 위로를 제공한다.

처사가 말했다. “이별은 운명이고 나의 탓이 아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늘의 덕분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십오 년의 불행은 송산도인이 일찍이 말씀했던 것이니 다시 무엇을 한탄하겠는가.”[處士曰 相別命也 非我也 相逢 天也 非人也 十五年厄會 嵩山道人曾所言之 復何恨哉](<오로봉기>, 50면)

황처사 부부와 황태을이 재회하는 대목이다. 이별은 하늘의 뜻이고 자신의 탓이 아니라고 말한다. 인간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선택이 타인에게도 올바르게 보이기를 바란다. 하지만 자신의 선택이 타인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면, 선택의 타당한 이유를 미리 알려져서 비난을 피할 것이다. 아이를 버리는 행동은 고금을 막론하고 비난받을 일이기 때문에 <숙향전>에서 노선(老仙)이 김전에게 “네 그릇은 죄 안니라 하늘리 정허신 일니라.”³⁴⁾라고 하는 것처럼 신성한 인물을 내세워 비난을 잠재우는 것이다. 그런데 <오로봉기>의 황처사는 운명의 탓이지 자기 탓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이 없음을 정당화하고 있다.

34) <숙향전>, 176면.

<오로봉기>에서 황태을 가족의 재회는 황태을이 입신양명한 뒤에 일어나기 때문에 황태을의 부모는 아들인 황태을의 영화를 함께 누리게 된다.

처사가 한탄하며 말했다. “저는 피난하는 하남 출신으로 지금 대승상의 아버가 되고 귀공주의 시부가 되었으니 이 몸이 받은 복이 어찌 이리도 과분하다는 말인가.”[處士歎曰 吾以河南逃亂之氓 今爲大丞相之父 且爲貴公主之舅 此身稟福 何太過也](<오로봉기>, 54면)

고전소설에서 남녀주인공의 자유로운 만남은 부모의 부재 상황에서 이루어지거나 부모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경우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숙향전>의 숙향은 김전 부부와 헤어졌을 때 이선과 결연하였고, 이선은 부친 이상서 몰래 숙향과 결연하였다. 또 <구운몽>의 양소유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신선이 되어 떠나갔다. <오로봉기>의 황태을은 부모와 헤어져 있을 때 네 명의 여성과 결연하였던바, 결국 <오로봉기>의 가족 이산은 황태을의 결연을 위한 장치라 할 수 있는 것이다.

2) 남녀의 결연과 인물의 특징

<오로봉기>는 5명의 남녀주인공들이 혼사장애를 극복하고 우여곡절 끝에 혼인한 뒤 이상적인 삶을 사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남녀주인공들은 뛰어난 재주와 아름다움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러한 주인공의 설정은 재자가인 소설에서 찾을 수 있는데, ‘재자가인’이라는 말처럼 다른 소설 장르보다 남녀주인공의 면모가 중시되는 유형이다.

<오로봉기>는 한 명의 남주인공이 네 명의 여주인공들과 만나는 일부다처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황태을과 청운학의 결연이다. 황태을이 가장 먼저 만나는 인물은 청운학으로 두 사람의 만남은 청운학이 황태을 직접 찾아와 결연을 청하면서 이루어진다.

태을이 물었다. “낭자는 어디 사람입니까?” 여인이 대답했다. “공자께서 누추한 곳에 와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저의 얼굴을 모르시나요?” 저의 성은 청씨이고 이름은 운학입니다. 주인 집의 딸인데 저의 부친께서 본래 지감이 있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귀인을 만나 많은 복을 누릴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공자를 얻은 이래로 매일 즐거워하시고 장차 성장하기를 기다려 혼인의 약속을 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아직 어리지만 그 뜻을 알고 공자를 종신토록 공자를 우러러 보기를 바랐습니다. 불행히도 공자가 멀리 떠나시니 제가 감히 사

사로이 뵈러 왔습니다만 잠깐의 부끄러움을 돌아보지 않고 훗날 아름다운 기약을 닦고자 합니다.” 태율이 몹시 놀라 탄식하며 말했다. “삼가 듣건대 남자의 말이 진실로 내 마음이 원하는 바이다.” [太乙問曰 小娘何許人也 女對曰 公子辱臨陋地 久閱春秋 猶不知妾之顏面乎 妾姓靑氏 名雲鶴也 主家女 妾父 素有知鑑 常指妾而言曰 汝當遇貴人 共享多福 自得公子以來 每日欣幸 將待其年長 欲定朱陳之約 故妾雖幼冲 亦知其意 深欲終身仰望於公子矣 不幸公子 將有萬里之行 故妾敢來私見 不顧暫時之嫌愧 欲修他日之好期 太乙 驚歎曰 恭聞娘子之言 實是吾心之願](〈오로봉기〉, 8면)

청운학은 전란이 일어나 버려진 황태을을 데리고 가서 양육했던 도적의 딸이다. 청운학은 부친이 황태을을 배필로 삼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황태을이 부모를 찾기 위해 떠난다는 것을 알고 혼자 찾아와 결연을 청한다. 청운학의 이야기를 들은 황태을은 “진정 내 마음도 바라는 바이다.”라고 하며 두 사람은 화답시를 나누고 5년 뒤를 기약하며 헤어지게 된다. 이들의 결연에서는 본인들의 의지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황태을과 현천홍의 결연을 보자. 황태을은 부모의 소식을 알기 위해 외가가 있는 하북으로 향하는 길에 현천홍의 부친인 현상사를 만나게 된다. 현상사가 술법을 써서 황태을에게 자신의 딸과 혼인을 제안하나, 황태을은 청운학과 결연했다는 이유로 거절한다. 황태을은 현상서의 권유로 그 집에 잠시 머무르는데, 현상사는 황태을에 대해 묻는 현천홍에게 황태을의 말을 자세하게 전해 준다. 어느 날 현상사가 잔치를 열자 황태을과 현천홍이 만나게 되고, 그 자리에서 현천홍은 황태을에게 다시 혼인을 청한다. 즉 현상사가 황태을에게 혼인을 제안하기 전에 현천홍은 자신의 비범한 능력으로 황태을을 배필로 결정하고, 그 길로 부친을 보내 혼인을 청한 것이며, 황태을이 거절하자 직접 나와 결연을 이루게 된 것이다.

소저의 나이 십사세가 되었다. 이에 부친께 아뢰었다. “소녀가 근래에 하늘의 형상을 보니 기이한 기운이 남쪽에서 왔습니다. 반드시 대인이 이곳에 들어 온 것이니 이 기회를 잃지 마십시오. 부친은 잠시의 노고를 생각하지 마시고 가동 수십 명을 거느리고 남쪽 길에서 기다리시면 모일 모시에 마땅히 만날 것입니다.”[小姐年十四歲矣 乃告於父親曰 小女近觀乾象 奇氣自南方而來 必有大人入界 此機不可失也 父親 不念暫時之勞 率家僮數十人 待於南路 則某日某時當逢矣](〈오로봉기〉, 12면)

“첩은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첩이 비루함은 공자가 이미 상상하셨을 것입니다. 재주가 없음을 헤아릴 수 없지만 당신을 따르고 싶습니다. 평주는 궁벽하고 인물이 없기 때문에

첩의 나이가 십 세가 넘도록 결혼을 못한 것은 공자께서 왕림하시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공자께서는 난처한 일이 있어 앙망하는 마음을 저버리려고 합니까. 첩이 예의 경중과 가부를 따지지 않고 수치를 머금고 부끄러움을 무릅쓰며 상도를 버리고 권도를 따른 것은 한번 군자를 보면 죽어도 한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妾生於此地 長於此地 妾之鄙卑 公子已想矣 然不量不才 願從君子 而顧此平州 既僻且窮 未有其人 故妾逾十歲 斷無婚議 蓋待公子之來臨也 公子有疑難之事而孤負仰望之心耶 妾不問禮之輕重之可否 包羞冒慚 舍經從權 惟欲一見君子 死無悔矣](<오로봉기>15면)

첫 번째 인용문은 현천홍이 지감으로 황태율이 오는 것을 알고, 그에게 결연을 청하기 위해 현상사를 보내는 대목이다. 부친을 보내 결연을 청하는 것은 당시의 환경에서 상층 가문의 여성이 직접 결연을 청할 수 없기 때문인데, 표면상으로는 현상사가 혼인을 청한 것이지만, 현천홍이 상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 인용문은 황태율이 혼인을 거절하자 현천홍이 황태율을 직접 찾아와서 결연을 청하는 대목이다. 비록 혼인을 거절했다는 이유가 있기는 하나, 여성이 직접 찾아와 청혼을 하는 것은 상층 가문의 혼인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이는 현천홍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주도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은 여성 주도적 재자가인소설에서 서사를 적극적으로 이끄는 가인의 모습에서 발견되는데, 이는 재자가인소설과 영웅소설의 교섭 양상으로 볼 수 있다.³⁵⁾ 그렇다면 <오로봉기>의 현천홍은 재자가인소설 및 여성영웅소설의 여주인공의 성격을 공히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황태율과 현천홍의 결연은 당사자들의 주체적 의지에 의해 결연이 실행되는데, 특히 현천홍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이별 또한 황태율이 부모를 찾기 위해 떠나기로 결심하고 현천홍은 그 소식을 듣고 시를 지어 시비에게 보낸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황태율과 백화연으로, 이는 상층 남성과 기녀의 만남이다. 황태율과 백화연은 서로 만나기 전에 꿈속에서 서로 먼저 만났었는데, 꿈속에서 둘이 만난 장소는 바로 백화연의 거처였다. 꿈에서 깬 황태율이 꿈속의 장소를 찾아가 백화연을 만나 시를 읊자, 백화연이 그 소리를 듣게 되면서 눈길이 마주치게 되고, 이후 둘은 결연을 한다. 이러한 결연은 청운학과 현천홍의 결연 과정에서는 볼 수 없는 풍류적이고 낭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으며, 남녀의 자유로운 애정을 보여준다. 이는 백화연이 기녀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다.

35) 김정숙, 앞의 책, 167면.

기녀와 선비의 결연을 그린 소설에서는 남주인공에게 의탁하려는 여주인공들의 욕망이 나타나는데, 백화연도 자신이 기녀이지만 항상 뜻이 있는 군자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하며 황태을에게 일생을 의탁하고자 한다. 기녀와 선비의 결연은 버려질 것을 두려워하는 기녀들의 심리로 인해 다른 여성을 질투하여 애정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백화연은 다른 여성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구운몽>의 계섬월처럼 다른 여인들을 천거하지는 않으나, 황태을이 청운학과의 약속 및 현천홍과의 정혼에 대해 이야기해도 질투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재자가인소설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로, 가인들은 재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것에 대해 의문을 품거나 질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재주 있는 다른 여성을 추천하고 가인들끼리는 재자를 섬기기로 약속을 하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³⁶⁾

이제 마지막으로 황태을과 주계란의 결연을 살펴보자. 황태을이 과거에 급제하자 황제의 눈에 띄게 되는데, 이에 황제는 황태을에게 공주 주계란과의 혼인을 명한다. 늙은 모티프는 황제나 권력가의 명을 거역한 남주인공에게 시련을 주는 장치로 영웅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이며, <구운몽>에서도 양소유가 정경패와 이미 혼약을 했다는 이유로 난양공주와 혼인을 거절하여 투옥되는 시련을 겪는다. 그런데 <구운몽>에서는 양소유가 정경패에 대한 신의를 끝까지 지키려 하는 데 반해 <오로봉기>에서는 황태을이 황제의 명을 거역하지 않고 수용한다. 황태을은 황제의 명을 거역하면 자신이 큰 화를 당하리라고 걱정하여, 하복에 정혼자 현천홍이 있다는 사실을 황제에게 아뢰지 못한다. 그 대신 황제에게 부모를 찾고 나서 혼인을 하겠다고 하뢰어 주계란과 혼인을 미루도록 하는바, 이로 인해 황제와 황태을 사이에는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황태을은 부마가 된다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도 하지만 권력에 순응하고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실적 인간의 면모를 드러내기도 한다.

주계란과 황태을의 결연에는 시가 매개가 된다. 황태을이 현천홍을 그리워하며 지은 시를 책상에 두었는데, 새가 시를 쓴 종이를 가지고 날아가 주계란에게 전해준다. 주계란은 시의 주인이 황태을인 것을 알고 그에게 정혼자가 있다는 것을 황제에게 말해 현천홍과 같이 혼인하고자 한다.

이상으로 <오로봉기>의 남녀 결연 양상을 살펴보았다. <오로봉기>의 결연은 인물마다 각각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여성이 주체적으로 결연을 이끈다는 공통점이

36) 최수경, 「청대 재자가인소설의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01, 234면.

있다.

앞서 살펴본 바 <오로봉기>의 모든 결연에는 주인공들의 ‘시’가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은 재자가인소설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재자와 가인은 결연을 이루기 위해서 문재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오로봉기>에는 총 14수의 시가 삽입되어 있는데, 송산도인과 견우성의 시, 황태을의 시 2수, 여주인공들의 시 10수이다. <오로봉기>에서 여주인공의 시는 결연을 완성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유모가 대답했다. “내전에서 명을 내리기를 ‘국가에 경사가 있음은 모든 백성에게 다행이고 경대부부터 사서인까지 원근을 막론하고 모두 항상서 성공을 주제로 해서 칭송하는 시를 올리라 하시고 마지막 구에 시인의 소회를 부쳐 임금을 칭송함이 있다면 천금의 상을 내리겠다.’라고 하였습니다.”[乳媪對曰 自內殿 下旨曰 國家有慶 是兆民之幸 自卿大夫以下 至士庶人 無問遠近 各獻詩頌美 題意 則以黃尙書成功爲主 且末句 各附詩人所懷之事 而有稱聖旨 則以千金 賞之矣](<오로봉기>, 41~42면)

위 인용문은 황제와 주계란이 현천홍을 만나기 위해 계획하는 장면이다. 이후 현천홍·청운학·백화연은 시를 지어 올려 문재 능력을 인정받아 입궁하고, 전장에서 돌아온 황태을과 재회하게 된다. 이처럼 아름다운 외모와 문재가 뛰어난 남녀의 결연 양상은 재자가인소설의 인물 형상이다.

<오로봉기>에는 다수의 여성과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관심이 나타난다. 이는 한 명의 남성이 다수의 여성과 결연을 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야기되는 것으로, 남성의 욕망이 반영된 것이다. 결연의 과정에서는 여성들 사이의 질투가 나타나지 않으며, 작품의 등장인물들 역시 한 명의 재자가 여러 가인과 결연을 맺는 것에 대해 거부하거나 반대하지 않는다.

3) 오행에 따른 작명과 배치

동양철학에서는 음양오행(陰陽五行)으로 세상을 설명한다. 양은 동적이고, 강하고, 뜨겁고, 어둡고, 남성적인 것을 의미하여 이와 반하는 성질을 가진 것이 음이다.³⁷⁾ 오행(五行)은 목·화·토·금·수인데,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37) 소재학, 『음양오행의 원리이해』, 석하명리, 2014, 49~64면.

오행(五行)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
오방(五方)	동(東)	남(南)	중(中)	서(西)	북(北)
오상(五常)	인(仁)	예(禮)	신(信)	의(義)	지(智)
오시(五時)	입춘	입하	입서	입추	입동
오색(五色)	청(靑)	적(赤)	황(黃)	백(白)	현(玄)
오미(五味)	시다	쓰다	달다	맵다	짜다
오덕(五德)	명(明)	종(從)	예(睿)	총(聰)	공(恭)
오장(五臟)	간(肝)	심(心)	비(脾)	폐(肺)	신(腎)
오취(五臭)	노린내	탄내	향내	비린내	썩은내

오행은 예술과 일상을 넘나들며 다양한 방면에 영향을 끼쳤다. 조선시대 어좌 뒤를 장식했던 <일월오봉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사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작명(作名) 역시 오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문학작품에서 주인공들이 오행을 형상화하고 있는 소설들이 있다. 예컨대 <남정팔난기>는 5명의 주인공이 오행의 특성에 따라 형상화된 소설이다.³⁸⁾ <오로봉기>의 인물 설정은 오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에서 이미 자세히 논한 바 있다. 차충환은 <오로봉기>의 서사 전개 방식을 논의하면서 인물의 성명, 출생지, 거소 등의 명칭이 오성(五星), 오색(五色), 오방(五方), 오상(五常)과 합치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오로봉기>가 운명론적 서사 전개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³⁹⁾ 정지아도 인물들의 성과 궁전의 이름이 오행에 맞게 배치되고 있다는 것을 밝히며 <오로봉기>가 처음부터宿命론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서술되었다고 했다.⁴⁰⁾ 여기서는 선행 연구의 내용을 수용하면서 <오로봉기>에 나타나는 오행에 따른 작명과 배치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북신에 다섯 별이 있으니 태율이 항상 중앙에 있고 오성은 곧 오행이다. 그 하늘에 있을 때는 목화수금토의 기운을 얻어 오위에 나열하여 있고 그 땅으로 내려 왔을 때에는 청·백·주·현·황의 성을 얻어 오방에 흠어져 처하니 이 어찌 하늘과 땅이 자상하게 명한 것이 아니겠는가? 오로봉 아래 함께 궁을 짓기를 인·의·예·지·신이라 하니, 그 또한 생각건대 하늘이 명한 뜻을 얻은 것이다.[按北宸有五星 太乙常居中央 五星者即五行也 方其在天也 各得木火金水土之氣 列

38) 최윤희, 「남정팔난기의 인물 관계와 그 의미」, 『고전과 해석』, 고전한문학회, 2009, 100면.

39) 차충환, 앞의 논문, 313면.

40) 정지아, 앞의 논문, 42~43면.

在五位 及其降地也 又得靑白朱玄黃之姓 散處五方 此豈非天地諄諄若面命者乎 至乃併聚於五老峰下 宮之曰 仁義禮智信 則其亦想得夫天之所命之意也](<오로봉기>, 66면)

낙양의 태을은 삼가 부인인 하북의 현천홍, 호남의 주계란, 숙인인 제동의 청운학, 농서의 백화연이 감히 오봉지신에게 고합니다. 우리 다섯 명은 오방에서 태어나 한 가정에서 모이게 되었으니, 그 성을 말하면 청·백·주·현·황입니다.[洛陽 黃太乙 謹與夫人 河北玄天鴻 湖南朱桂鸞 濟東靑雲鶴 隴西白花燕 敢告五峰之神 嗚呼 唯我五人 生於五方 聚於一室 言其姓 則曰靑曰白曰朱曰玄曰黃](<오로봉기>, 68면)

<오로봉기>는 한 명의 남주인공이 네 명의 여성들을 만나는 내용이다. 총 다섯 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이들의 이름에서 오색과 오방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다. 다섯 명의 주인공들은 목·화·토·금·수 다섯 원소에 해당하는데 목은 청운학, 화는 주계란, 토는 황태을, 금은 백화연, 수는 현천홍이다. 이들은 다섯 개의 별을 대표하며 오상(五常)로 말하면 인·예·신·의·지이다. 인·예·신·의·지는 다섯 명이 거쳐하는 궁의 이름으로, 청운학은 명인궁, 주계란은 명례궁, 황태을은 명신궁, 백화연은 명의궁, 현천홍은 명지궁에 살게 된다.

황태을(黃太乙)의 거주지는 오방의 중심인 낙양(洛陽)인데, 낙양은 사방 토지의 중앙이라는 토중(土中)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토는 황(黃)색이며 중앙에 위치하고 토가 중앙에 위치하는 것은 목·화·금·수가 동·남·서·북의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고 기울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데, <오로봉기>에서도 황태을을 중심으로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애정담이 전개된다. 목은 제동(濟東)의 청운학(靑雲鶴), 화는 호남(湖南)의 주계란(朱桂鸞), 금은 농서(隴西)의 백화연(白花燕), 수는 하북(河北) 현천홍(玄天鴻)을 의미한다. <오로봉기>에서 황태을의 결연은 ‘청운학[木]-현천홍[火]-백화연[金]-주계란[水]’ 순인데, 토에 해당하는 황태을을 제외하고 본다면, 이는 ‘목-화-토-금-수’의 상생(相生)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도 있다.

<오로봉기> 주인공의 이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부분은 새의 이름이다.

그 이름을 말하면 을·홍·난·연·학입니다. 성명이라는 것은 애초에 함께 도모한 것도 아니요 또한 기약한 바도 없는데 필경 서로 함께함이 마치 그림자와 메아리가 응하는 것과 같으니, 하늘의 명한 바가 아니라면 어찌 이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語其名則 乙也 鴻也 鸞也 燕也 鶴也 夫姓名者 初不同謀 亦無所期 而畢竟相並 有如影響 非天之所命 烏能如是哉](<오로봉기>.

68면)

주인공들의 이름에는 각각 을(乙)·학(鶴)·홍(鴻)·연(燕)·란(鸞)이 들어가 있다. ‘새’는 동양문화권에서 일상적이고 익숙한 소재로 각종 회화나 공예품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만큼 새는 익숙한 동물이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동물이었으며, 새의 고운 깃털이나 아름다운 소리 등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새가 가진 가장 큰 특징은 날개를 이용하여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점으로, 하늘과 땅을 자유로이 이동하고 연결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오로봉기>에서 이러한 새의 특성은 주인공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오로봉기>는 적강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보통 적강구조의 소설에서는 전생의 이름과 현생의 이름이 다르게 표현된다. 이름을 바꾸는 것은 원래 가진 정체성을 없애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는 행위이다. <속향전>의 남주인공은 ‘태을선군’에서 ‘이선’으로 바뀌는 것도 현실의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오로봉기>에서 남주인공은 ‘태을’이라는 전생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황태율이 천상계 인물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 남주인공 이름에 들어가 있는 ‘을(乙)’은 특정한 종류의 새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새를 통칭하는 말이다. 앞서 오행의 관계에서 살펴보았듯이 토(土)에 해당하는 남주인공은 중앙에 위치하고 어느 한 쪽을 치우치지 않게 균형을 이루게 하면서 통합과 조화를 이끄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새의 명칭에서도 그대로 구현되고 있는 것이다.⁴¹⁾

<오로봉기>에서 새의 특징은 여주인공들의 형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처사의 생일을 만나 천자가 잔치를 사연하고 주찬을 매우 후하게 차려 보냈다. 승상과 두 부인 두 숙인이 헌수하였다. 헌수가 끝나자 처사가 문기를 저 숙인이 배운 바가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흥을 돋오도록 하는게 좋지 않겠는가. 승상이 미처 대답하기 전에 두 숙인 저희들이 가무를 대략 알아 아버님이 한번 웃음짓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감히 스스로 청하지 못하였습니다. 청운학이 노래를 부르고 백화연이 춤을 추었는데 들어본 적 없는 노래와 춤이었다. 학이 청전으로 달려들고 제비가 백옥으로 날아들었다. 음향이 흐르고 그림자가 갈마드니, 바로 천고의 한 적수였다.[值處士生辰 天子賜宴 致酒饌甚厚 丞相與兩夫人兩淑人獻壽 壽畢 處士問承相曰 彼兩淑人 或有所學之技 則未可以令各助歡乎承相未及對 兩淑人進曰 妾等粗識歌舞 欲睹尊翁之一笑 而未敢自請矣處士喜卽命主之 於是 雲鶴唱歌 花燕起舞 歌所未聞 舞所未見 鶴突青田

41) 이에 대해서 차충환은 ‘을(乙)’이란 명칭이 鶴·鸞·燕·鴻을 포괄하는 말이라 했다. 앞의 논문, 313면.

燕飛白屋 流音迭影 直千古一敵手也](<오로봉기>, 55면)

황처사의 헌수연에 운학이 노래를 부르고 화연이 춤을 추는 장면이다. 학(鶴)은 예부터 두루미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그만큼 학의 울음소리가 맑고 크다는 것이며, 청운학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에서 학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백화연의 재주는 춤을 잘 추는 것이다. 백화연의 이름에는 제비[燕]가 나타난다. 제비는 친숙한 동물 중의 하나로, 물 찬 제비 같다고 하면 사람의 몸놀림이나 맵시가 날렵하고 산뜻하다는 뜻인데, 특히 젊고 아름다운 여인을 상징하기도 한다.⁴²⁾ <오로봉기>에서 제비는 춤을 추는 백화연의 아름다움을 상징한다.

현천홍의 이름에는 기러기[鴻]가 나타난다. 편지를 ‘안서(雁書)’라고도 하듯이 기러기는 소식을 전해 주는 새이다. 작품 후반에서 황태율이 부모와 재회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현천홍이 꿈에 나와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현부인이 말했다. “존명이 이에 미쳤으니 어찌 감히 여기겠습니까? 다만 성공하지 못한다 하여 꾸짖지 마시옵소서.” 앞에 있는 옥잔을 가져다가 채목으로 안과 밖을 그려서 땅에 던지니 곧 한 쌍의 천홍이 되어 푸른 구름 사이로 날아가니 모든 사람이 크게 놀랐다. 이윽고 다시 흰 구름에서 울며 날아오니 다리에 편지가 묶여 있었다. 처사가 그것을 보고 풀어보니 한 수의 절구였는데, 그 시는 다음과 같다. “그대가 오니 명월이 가득하고, 그대가 가니 백운이 외롭도다. 서로 생각하나 보지 못하니, 하늘 바람이 불어서 오동잎을 떨어지더라.” 그리고 시 아래에 “은한노선이 절하다.”라는 말이 쓰여 있었다. 처사가 본 뒤에 깜짝 놀라 좌우를 돌아보며 말했다. “이것은 견우의 수적이다.”[玄夫人曰尊命及此 何敢違也 但不成勿責也 乃取□前 玉盃以彩墨圖畫內外 擲之于地 卽化爲一雙天鴻 飛入雲霄之間 一座大驚 俄而復自雲間 飛鳴而來 足繫帛書 處士解而視之 一絕詩也 詩曰 君來明月滿 君去白雲孤 相憶不相見 天風吹落梧 詩下書 銀浦老仙拜 處士見罷大驚 顧左右曰 此牽牛手跡也](<오로봉기>, 57면)

황처사의 생일에 현천홍이 황처사를 위해 환술을 보여주는 장면인데, 이때 기러기 한 쌍이 날아와 견우성의 시를 주고 간다. 이처럼 현천홍은 인간과 인간을 연결할 뿐 아니라 천상과 지상을 연결하기도 한다.

주계란은 난새[鸞]이다. 난새는 신령스런 동물로 주계란의 공주라는 지위를 상징하는데, 이 새는 봉황과 같은 종류이며 오색 깃털이 나 있고 5음의 소리를 내며 그 소리가 매우 듣기 좋아서, 난조가 나타나면 천하가 태평해진다고 한다. 난새는 5음의

42) 김열규, 『상징으로 말하는 한국인, 한국 문화』, 일조각, 2014, 134면.

소리를 낸다고 했는데 이는 음악적 능력이 뛰어난 주계란의 재능을 보여준다.

공주가 말했다. “거문고 연주를 익히 보았으나 겨우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옛 곡조는 황탄함이 심하여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처사가 말하였다. “옛 곡조를 비록 스스로 아끼나 지금 사람들이 대부분은 연주하지 않으니, 옛 곡조를 들으면 또한 다행이겠다.” 공주가 오히려 부끄러움이 많아 감히 연주하지 못하자, 승상이 재촉하면서 말하였다. “대인이 명하였으니 가한지 시험하고 이에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공주가 마지 못하여 제순의 <남풍곡>을 연주하니, 오음이 어지럽지 않고 옥률이 조화로워 계수나무에 맑은 바람이 불고 오동잎에 물방울이 떨어졌다. 문득 두 마리 난새가 병풍 사이로 날아 들어와 쌍쌍이 마주하여 춤을 추다가 곡이 끝나자 날아갔다. 처사가 말하였다. “내 들으니 ‘순 임금의 소소를 아홉 번 연주하자, 봉황이 듣고 찾아와서 춤을 추었다.[簫韶九成 鳳凰來儀]’라고 하였는데, 귀주는 성인이로다.”[公主曰習觀弄絃 僅能運指 而古調荒甚 不可聽矣 處士曰 古調雖自愛 今人多不彈 聞古調 則又幸也 公主猶多羞澁 未敢即彈 承相促之曰 大人有命 試可乃已 公主不得已抱琴前跪 奏帝舜南風之曲 五音不亂 六律和鳴 風清桂枝 漏滴梧葉 忽有兩鸞 飛入屏間 雙雙對舞 曲終飛去 處士驚曰 吾聞昭昭九聲 鳳凰來儀 貴主聖人也](<오로봉기>, 57면)

주계란의 거문고 연주를 들은 황처사는 이를 순 임금의 음악에 비유하면서 칭찬한다. 이러한 주계란의 음악적 능력은 네 명의 여주인공들이 조화롭고 태평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든다. 음악이라는 것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 자연 질서와 긴밀하게 연관된 사회 질서의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⁴³⁾ 주계란에게서는 조화와 질서를 중시하는 모습이 발견된다.

공주가 부인들에게 말했다. “우리들은 네 가지 일은 서로 같지만 같을 수 없는 것은 한 가지가 있다.” 부인들이 말했다. “같은 것은 어떤 일이며 같지 않은 것은 어떤 일입니까?” 공주가 말했다. “무릇 사람은 비록 동기 사이라도 다투고 노함이 혹 우리들은 본래 사방에서 와서 고락을 나누고 있으니 이것은 명이 서로 같은 것이다. 십년 동안 전혀 시기함이 없으니, 이는 뜻이 서로 같은 것이다.”[公主謂夫人曰 吾輩有四事相同 而所不得同者 有一焉 夫人曰 所同者何事 不同者何也 公主曰 凡人雖一門之內 榮枯各異 而吾輩本四方人來 分苦樂 此命相同也 凡人雖同氣之間 爭怒或至 而吾輩群居十年了無嫌猜 此志相同也](<오로봉기>, 60면)

네 명의 여인들이 황태을과 혼인한 뒤, 주계란은 먼저 위와 같이 먼저 저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조화롭고 갈등 없는 태평성대를 이끄는 난새의 특징을 반영한

43) 장파, 『동양과 서양, 그리고 미학』, 푸른숲, 1999, 53면.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로봉기>의 작가는 음양오행을 활용하여 남녀주인공을 설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양은 남주인공, 음은 여주인공들이며, 오행은 이들의 조화로운 결연에 활용되고 있다. 즉 목·화·토·금·수 다섯 원소를 각각의 인물에 배속시키되, 남주인공 황태을을 중심에 두고 네 명의 여주인공을 사방에 배치한 것이다. 이는 새를 활용한 작명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바, 남주인공의 이름인 을(乙)은 새 일반을 상징하며, 여주인공의 이름인 학(鶴)·홍(鴻)·연(燕)·란(鸞)은 여주인공들의 형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IV. <황태을전>, <오선기봉>의 번역과 개작

1. <황태을전>의 번역 양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황태을전(黃太乙傳)>은 번역본으로, 한문본 <오로봉기(五老峰記)>와 비교했을 때,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황태을전>은 <오로봉기>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는데, 단어와 문장의 부분적 출입이 나타나고 있는 대목들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는 <오로봉기>와 <황태을전>을 비교하여, <황태을전>의 번역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황태을전>은 도입부와 결말부에서 <오로봉기>와의 차이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오로봉기>의 결말부에 나오는 다음 대목 <황태을전>에는 보이지 않는다.

복신에 다섯 별이 있으니 태율이 항상 중앙에 있고 오성은 곧 오행이다. 그 하늘에 있을 때는 목화수금토의 기운을 얻어 오위에 나열하여 있고 그 땅으로 내려 왔을 때에는 청·백·주·현·황의 성을 얻어 오방에 흩어져 처하니 이 어찌 하늘과 땅이 자상하게 명한 것이 아니겠는가? 오로봉 아래 함께 궁을 짓기를 인·의·예·지·신이라 하니, 그 또한 생각건대 하늘이 명한 뜻을 얻은 것이다. 또 오로의 이름이 처음에는 실상이 없었지만 여기에서는 실상과 부합하니 어떻게 아름다운 봉우리가 우뚝 솟아 있음을 알고 천고에 이 다섯 사람이 여기지 않겠는가. 그러한 즉 오로봉의 우뚝 솟은 모양은 인물을 더 많이 얻은 것과 같다. 아! 옛날 한조와 송조의 흥함이다. 오성이 혹은 정에 모이고 혹은 규에 모이는 것은 모두 명을 받아 응답한 것이고 분명하게 북극에 서있게 된 것이다.[按北宸有五星 太乙常居中央 五星者卽五行也 方其在天也 各得木火金水土之氣 列在五位 及其降地也 又得靑白朱玄黃之姓 散處五方 此豈非天地諄諄若面命者乎 至乃僕聚於五老峰下 宮之曰 仁義禮智信則 其亦想得夫天之所命之意也 且五老之名 初無其實 至此而 名實合焉 夫安知茲峰之屹立 千古如有所侯者 不爲此五人者耶 然則五老之峰巍然 若得人增重者矣 嗚呼 在昔漢祖宋祖之興也 五星或聚於井 或聚於奎 皆所以應受命 而明立極也]

(<오로봉기>, 66~67면)

이 대목은 이미 이야기기 종결된 뒤에 제시된 것으로, 작품의 서사전개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황태을전>에서 생략했다고 볼 수 있다.

<황태을전>의 도입부 부분을 살펴보면, <오로봉기>에 비해 문장이 확대되고 인물의 발화가 첨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낙양은 천하의 중심으로 산천 수려하고 인물이 풍성하여 예로부터 장상왕후와 영웅호걸이 이곳에서 많이 나왔으니 대개 천지 정명한 기운이 중토에 모이기 때문이었다. 원나라 말기 처사 황입중은 황제의 후예로서 현내 취성촌에 살았는데 나이 오십에도 자식이 없었다. 처사와 부인 변씨가 삼일을 목욕재계하고 송산 꼭대기에 올라가 글을 지어 빌었다.[洛陽 天下之中 山川 秀麗 人物 豐盛 自古以來 將相王侯 英雄豪傑 多出於此 蓋天地精明之氣 會于中土故也 元末 處士黃立中 以黃帝後裔 居縣內聚星村 年五十 無子女 處士 與夫人卞氏 三夜齋沐 上嵩山絕頂 作文以禱](〈오로봉기〉, 1면)

디명 티쵸고 황제시절에 국티민안하고 가급인족하야 빅성이 계양가를 일삼든 잇찌에 낙양짱은 자고로 제왕의 도읍지이라 산천도 가려하고 인물이 변화하야 왕후장상과 영웅호걸이 이곳디 만히 종출하난지라 현디 취성동은 한가하고 산수도 가려한 곳지라 그 동니에 한처사가 잇시되 성은 황이요 일흠은 입중이라 뉴디 즈영지족으로 일헝에 천달하드니 황처사에 밋쳐서는 연장 오십에 슬하에 일점 혈육이 업서 부인변씨로 더부러 미양 슈심으로 세월을 보니드니 일일은 처사가 부인변씨로 언급하야 이연이 말숨을 나숙거하야 왈 낙양에 송순은 일국에 제일가는 명산이라 청명한 기운과 가터한 기상은 천지에 제일이오 풍운을 초흠한 듯 하오니 북망부인은 비루한 이 사람을 드렵다사시고 정성을 극진이하야 지성으로 발원하오면 흑여시 귀남자를 점지하실줄 아지 못하오니 금일 위시하야 목욕지게하고 비려부사이다하디 부인이 슈괴한 마음으로 삼일삼야에 정성을 다하야 처사로 헝가지 송산을 헝하야 정결하고디 터을 짝가 오식기로 만위를 정하고 쥬과초혜을 정같이 진열하고 축문을 지려 비레가로디(〈황태을전〉, 상 1~2면)

인용문은 <오로봉기>와 <황태을전>의 도입부로 황처사 부부가 송산에 가서 아이를 기원하는 대목이다. <황태을전>이 양적으로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로봉기>에서는 황처사 부부가 간략히 소개되었다면, <황태을전>에서는 황처사 부부의 거주지, 자식이 없는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서술되고 있으며, 황처사의 발언과 변씨의 심리까지 추가되어 양적으로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확대의 양상은 국문소설에서 흔히 보이는 것인바, 원작인 한문본 <오로봉기>에는 없었던 것을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다음의 예에서도 이러한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그날 밤에 청씨가 승상께 은밀히 말했다. “부인이 성품이 호방하니 상공이 말로서 격동을 하면 그 술수를 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승상이 웃으면 말했다. “남자의 말이 옳다.” 다음날 승상이 부인의 침실에 앉아있었는데 공주와 숙인 모두 모여 있었다. “내가 듣기로 여자의 예는 어긋남이 없는 것이 올바른 것이니 장부가 바라는 바를 따르지 않음이 없어야 마땅히 없어야 한다. 내가 환술을 보고 싶었으나 끝내 볼 수 없으니, 부인이 지난 번 행한 것이 천력일득이지

진실로 신술이 있는 것이 아님을 이제야 알았다.” 부인이 웃으며 말했다. “이는 청운학의 계교가 아닙니까. 비록 온갖 말로 격동하더라도 무익할 것입니다.” 승상과 청운학이 모두 암암리에 놀랐다. 부인이 말했다. “상공께서 이리 청을 하시니 첩이 한번 재능을 다해보겠습니다.” 상공께서 구지 청하심이 이와 같으니 제가 한번 능한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황공과 귀주를 놀라게 할까 두렵습니다.[是夜 靑氏密告於丞相曰 夫人性本豪矜 相公以言激之 則可行其術矣 丞相笑曰 娘言是也 明日 丞相坐夫人寢室 公主及淑人皆會 因謂夫人曰 吾聞 女子之禮 無違爲正 丈夫所欲 宜無 不從 而吾欲見幻術 終不可得 始知夫人向時所行 乃千慮一得 非實有神術也 夫人笑曰 此 非靑雲鶴之計乎 雖激之萬言 無益矣 丞相及雲鶴 皆暗暗相驚 夫人曰相公固請至此 妾欲一盡所能 但而恐驚動相公與貴主矣 丞相喜曰吾曾在萬軍之中矣 石如雨 死傷相繼 而此心略不動矣 今乃爲異術所搖耶 願夫人小勿疑慮 隨盡其能 願謂公主曰暫避 公主笑曰妾賴相公 亦欲一觀時 兩淑人及左右宮人等 皆見之 一無退去](〈오로봉기〉, 58면)

시야에 청부인이 가만히 승상께 고 알 부인의 성품이 본디 호절실옴고 가공하니 상공은 말노써 격돈하면 가히 그 환술을 불가하난이다 승상이 우서 가로디 부인의 말숨이 올타 하고 청부인으로 하야 병풍 뒤에 슈무라 하고 즉시 현부인을 불은 즉 곳 왓는지라 승상이 정식 왓 니가 들으니 여자의 예에는 가장의 명을 어기지 아니흠이 가장 정도어날 장부의 말흔 바을 능멸이 알고 쫓지 아니하나 비로소 글은거선 알깃또다 부인이 힘일에 힘흔 바은 일천분 심각하야서 혼분어든 바로써 칭신 놀이잇서 서흔 바은 아니로다 부인 왓 이거시 청운학의 계교가 아니오 잇가 비록 천어만설노 격몽을하나 무익이로소이다 승상과 청부인라 가만이 놀니난지라 현부인이 왓 상공이 이디고 청을 흠니 한번 소능을 다하고저 하나 다만 상공과 여러 부인이 놀닐가 두여하난이다(〈황태을전〉, 하 45~46면)

황태을이 현천홍의 환술을 다시 보고 싶어서 청운학과 모의를 하고 현천홍을 불러 꾸짖는 대목이다. <황태을전>에는 “청부인으로 하야 병풍 뒤에 슈무라 하고 즉시 현부인을 불은 즉 곳 왓는지라”라는 문장이 첨가되어 있는데, 서사 전개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이후 청운학이 몰래 숨어서 지켜보다가 깜짝 놀라는 대목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긴장감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황태을전>에서 새로운 문장을 첨가하여 내용을 풍부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예문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나타난다.

三春將去 百花已謝 鷺鴻盡歸 蜀鳥悲鳴 亦非遠客懷歸之時乎(〈오로봉기〉, 9면)

삼춘에 봄빛치 다하고 일만화초은 불근 빗칠 자랑하며 월은 동창에 빈치난디 두겐시는 슬피 울고 잘서 낮나라드는디 원적이 도라가기를 심각할 찌가 안인가(〈황태을전〉, 상 20면)

삼춘이 임의 다 가고 벽화가 장초 찌러지며 기러기는 도라가고 두견시 숲히우니 먼리 노는 손에 도라갈 송각이 잇실 짜라(<오선기봉>, 378면)

인용문은 황태율이 떠나기 전 청운학이 찾아와서 한 발화이다. <황태율전>의 “일만화초은 불근 빗칠 자랑하며 월은 동창에 빈치난디”라는 구절은 <오로봉기>와 <오선기봉>에는 나타나지 않고 <황태율전>에만 첨가된 대목으로, 서사 전개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내용은 풍부하게 하고 있다.

고전소설의 번역과 필사 과정에서 번역자 혹은 필사자의 의도에 따라 생략과 축약이 일어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국문본으로 전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제목의 변경, 삽입 시문의 생략과 축약, 국문소설 구기(口氣)의 투입, 일부 구절의 생략 또는 확대 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⁴⁴⁾ 이러한 현상은 국문본의 번역이나 개작의 양상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 <황태율전>에는 ‘차설’, ‘화설’과 같은 국문소설의 구기는 나타나지 않지만, 생략과 축약을 확인할 수 있다.

한림이 다시 상소를 올려 힘써 청하니 평적대장군으로 임명하고 정병 오만을 내어 제동의 도적을 토벌하도록 명하며 황제가 경계하며 말했다. “경은 짐이 걱정이 되니 삼가 은밀히 명령을 받들지 말라.” 한림이 사양하고 명을 받아 날을 정하여 행군하니 군대의 모습이 정돈되고 격식을 갖추었으며 호령이 엄숙하였다. 또 일찍이 도인에게 받은 방서에 진법이 모두 팔괘의 기이한 변화에서 나타난 것으로 병사들도 측량하지 못하였다. 다만 공명선생이 다시 세상에 나타났다고 말했다.[翰林 又上疏力請 上許之 卽拜平賊大將軍 發精兵五萬 命討濟賊 帝戒之曰 卿慎密毋令朕憂 翰林 拜辭受命 擇日發行 兵容整齊 號令嚴明 且曾受道人方書 陳法 皆出於八卦奇變也 軍中莫則 但稱孔明 復出於世矣](<오로봉기>, 33면)

할임이 또한 상소 왈 신이 기운을 청하거날 황제 경계하야 왈 경이 지회가 만흠을 직키고 짐의 근심을 털기하라헌디 할임 두 번 절하고 명을 바다가지고 턱일하야 발힐할시 군사의 엄숙 흠미 천지을 움지기고 호령이 엄숙하야 일월이 치미하니 니거선 도인의 병서를 바다서 군사법 법이 다 팔괘에 기이헌 법일너라 이르흠으로 군중이 할임의 지조를 측양치 못하야 옛날 공명선생이 이 세상에 다시 낫다고 분분하더라(<황태율전>, 상 72면)

황태율이 난을 일으킨 진교를 정벌하기 위해 황제의 명을 받아 출정하는 대목으로, <황태율전>에는 문장의 생략과 부연이 나타나고 있다. 생략된 부분은 황태율의 지위,

44) 엄태식, 「조선 후기 전기소설 국문본의 종합적 고찰」, 『돈암어문학』 39, 돈암어문학회, 2021, 35면.

군사적 수 같은 구체적 정보들로, 서사 전개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황태을전>에는 “천지를 움지기고”, “일월이 치미하니” 같은 표현이 부연되고 있으며 황태을의 군대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황태을전>에 나타난 생략과 부연된 문장들은 내용 전개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도 서술 및 표현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시가 인용되고 있는 대목들을 살펴보면 직역(直譯)과 음사(音寫)의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난다.

서로 만나고 서로 이별이 잠간사에 잇시니 객의 마음이 물과 갖치 널으난다 구중에 심각은 가득한 달과 말손 밋치 감돌고 길에서 쫓치 폐에 죠흔 일이 만토라 삼정동이 집터난디 지비가 춤을 추고 구우궁이 가즉흔디 청초가 노리하난지라 가이 여렵부다 사년 후 다시 만니난 날 쌍디나무가 의의하야 비단에 빗칠이라 하엿드라(<황태을전>, 상 37면)

제일 천글에 왈 궁구흔 업고리 히라 옥서 정인이 거무기라 봉상청유금야몽인디 쇼류화월상의 의라 하엿고 제이시에 왈 비자위가읍자가하니 첩서창히서병가라 모운철이회군지에 무한청산벽 슈다라 하엿고 제습시에 왈 독슈천원장부절은 최송동북불우시라가영옥절남훈일에 회슈장하별 유시라 하엿드라(<황태을전>, 하 11면)

첫 번째 인용문은 현천홍이 황태을과 이별할 때 쓴 시이다. 이 시는 삼정동에서 백화연을 만나고 구우궁에 거처하는 주계란을 만나게 될 것이며 현천홍과 황태을은 4년 뒤에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담고 있어 작품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시가 직역되어 있어서 그 내용이 충실히 전달되고 있다. 두 번째 인용문은 청운학·백화연·현천홍의 시로, 번역은 하지 않고 독음과 현토만 했다. 이 시에 대해서는 뒤에서 “첫 시는 상사흙을 들어놓고 정계를 자못 천유에 것넌 쫓지오. 제이시는 적원이 포원하야 나무르논 쫓지로 그 부친을 승각하연고 그 중에 가장 우등은 제습시라 삼끼난 즐거하야도 음탕치 아니하고 하씩는 슬퍼하야 상하들 아니하엿시니”⁴⁵⁾라고 풀이하고 있는데, 번역을 하지 않아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45) <황태을전>, 하 13면.

2. <오선기봉>의 개작 양상

<오선기봉(五仙奇逢)>은 구활자본 소설로 <오로봉기>의 개작본이다.⁴⁶⁾ <오로봉기>와 비교해 보면, 등장 인물과 서사 전개가 거의 동일하지만, 개작되면서 내용의 변형이 나타났다.

태율이 돌아갈 생각이 더욱 깊어졌다. 마침내 손을 잡고 문 밖으로 나와 울면서 이별하고 서로 돌아보니 애타할 뿐이었다[太乙 歸思甚□ 遂携手出門 洒淚而別 相顧黯然而已](<오로봉기>, 10면)

문에 나서 작별을 고히니 운학이 눈물을 흘리고 만리 원정에 천만 보중함을 당부하고 도라가는 횡장을 바라보며 암연이 신혼이 사라질 따름이러라(<오선기봉>, 380~381면)

인용문은 청운학과 황태율의 이별 대목으로 <오로봉기>는 두 사람의 이별을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는 반면에 <오선기봉>은 ‘눈물을 흘리고 만리 원정에 천만 보중함을 당부하고 도라가는 횡장을 바라보며’라는 구절이 확대되어 남녀주인공들이 겪는 이별의 슬픔을 부각시켜주고 있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시비에게 말했다. “돌아가는 마차가 장차 가야하나 아름다운 목소리로 시를 읊조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돌아가기를 잊게 하니 마땅히 화답해야 하는데 급한 마음에 뜻을 이룰 수 없다. 훗날 만나는 날에 장차 남은 약속을 펼칠 것이다.” 마침내 상사에게 떠나는 것을 알리고 문 밖까지 나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謂侍婢曰 歸驂將發 玉音據至 一吟一詠 使人忘歸 卽當奉和 而忙未遂意 他日琴鍾之席 將振其餘韻矣 遂告辭於上舍 隨出門外 握手揮涕](<오로봉기>, 17면)

시비다려 일너 왈 도라가는 치즉이 임의 찌늑고 쇼저에 옥음이 일은지라 총망햐 화답지 못흐노니 다른날 다시 샤례히리라 흐고 현상샤를 작별흐 후(<오선기봉>, 388면)

현천홍과 황태율의 이별 장면으로 <오로봉기>에 비해 <오선기봉>이 간략하게 서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6) 앞서 살펴본 결과 <오선기봉>은 현재 전하는 <오로봉기>를 개작한 것은 아니지만 <오선기봉>의 원작이 한문본 <오로봉기>인 것은 분명하다. 현재 여타의 한문본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현재 전하는 <오로봉기>를 보고 개작 양상을 살펴보겠다.

백화연의 투신 장면을 두 작품에서 비교해 보자.

태율이 헤어질 수 없어 촌민에게 물어보니 이렇게 대답했다. “이 집의 남자가 여섯 살부터 농서에서 유명한 것이 형용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행실과 정절이 옛날의 열녀라도 미치지 못하느니 지난번에 행인이 하루 밤 인연을 맺고 가니 성중의 협객 십여 인이 그 말을 듣고 크게 화를 내었는데, ‘우리가 천금으로 구하여도 얻지 못했는데 도리어 행인에게 빼앗겼으니 우리가 모두 대장부가 아니다’고 하며 모두 모여 찾아가서 위협하고 취하려하니 남자가 먼저 그 기미를 알고 밤에 도망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혹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하더이다.”[太乙莫測 問于村民 則答曰 此家娘子 自六歲 鳴於隴西 非但色貌絕人 其行貞節 雖古之烈女 不能及也 去月行路一人見之 始做一夜之緣而去 城中俠少十餘人 聞之 太怒曰 吾輩 曾以千金求押尙不得矣 反爲路人所奪 吾輩 皆無膽人也 相與結黨而來 將欲劫取 娘子 先知其機 罔夜遁走 莫知去向 或云 投水而死矣](〈오로봉기〉, 21~22면)

연남이 초연이 이러나 문박글 나서 슈리를 힝하니 압해 대강이 림히고 뒤에서 사름에 현화 쇼리나며 풍류쇼년 슈십명이 스방으로 슈식하는지라 스기가 급박함을 알고 강가에 당도하야 일성통곡하며 하늘을 부르지져 왈 유유창턴야 화연을 인간에 내실세 어이 그쳐디를 천이히시며 그 무음은 어이 달이푸슈케 흐섯는노 광활흔 텃디에 적은 몸 한아를 용납홀곳이 업스오니 차라리 청강 어복에 굴삼녀의 자초를 차지며 소상강상에 이비의 혼을 좃치리로다 하고 말을 맞치며 물노 뛰여드니(〈오선기봉〉, 394~395면)

〈오로봉기〉는 백화연의 죽음을 황태율과 촌민의 대화로 전달할 뿐이지만, 〈오선기봉〉에는 백화연의 투신 대목이 직접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다음은 〈오선기봉〉의 첫 장면으로 황처사와 변씨 부인이 아이가 없어 송산에 기도하러 가는 대목으로, 〈오로봉기〉·〈황태율전〉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화설 원나라 말년에 락양 싸에 일위 은스 | 잇시니 성은 황이오 일흠은 립쥬이니 황데 현원씨의 후손이라디 잠녕세족으로 명환이 찌러지지 아니하더니 처사 | 절머셔부터 지쥬가 청히고 흥진에 쫓이 업셔 부인 변씨로 더브러 락양 취성촌에 락향하야 구름사이어 밧갈기와 달양티 고기낙기로 진세 일민이되야 소요 즈락하더라 노히 사십이 넘도록 설하에 일덤 혈육이 업셔미 양탄하더니 일일은 부인 변씨 처스씩 청하야 왈 첩이 죄악이 만스와 계성을 즈식을 두지 못하고 루더향화를 쓴치게되오니 엇 | 한심치 아니히리잇고 옛적 공즈갓흐신 대성인도 그 어마니 안씨씩셔 니구산에 빌어나섯는니 첩이 정성을 다하야 송산에 기도하야 혈속을 빌어 불가하어 니 허낙히시기를 바라나이다 헌디 처스 우셔 왈 우리의 무즈흠은 막비팔조오니 엇지 부인에 허물이라하며 또 산천에 기도하야 혈속을 어들진디 세상에 무즈흠 사름이 엇지 잇시리오 그러

는 부인의 뜻이 그와 같하시니 니 엇지 만류허리오 우리 둘이 갖치 가스 이마하고 그날부터 칠일지비훈 후 승산에 올라 빅일을 기도훈 후 도라왔더니(<오선기봉>, 1면)

위 인용문의 밑줄 친 대목은 <오선기봉>에만 나타난 발화로 양적으로 확대되었다. 확대된 대목은 국문소설의 관습적인 표현으로, 서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다음은 황태율이 전쟁에서 돌아와 네 명의 여인과 결연을 이루는 대목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오로봉기>에서는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지만 <오선기봉>에서는 인물들의 대화를 3면에 걸쳐 진행하면서 내용을 확대하고 있다.

이 밤은 황승상과 주부인과 베개를 나란히 하였고 이튿날부터 현부인이불을 나란히 하였고 청숙인의 방에서 잠을 자고 또 이튿날은 백숙인의 처소에서 잠을 잤다. 낮에는 오선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것 같고 밤이면 한 쌍의 나비가 나란히 날아가니 인간세상의 만남 기이함과 쾌락의 심함이 천고에 있지 않을 정도였다.[是夜 黃承相與朱夫人併枕 明日 與玄夫人聯襟 又明日 宿靑淑人房 又明日 宿白淑人所畫 則五仙齊坐 夜則 雙蝶送飛 人間會合之奇 快樂之甚 歷萬千古而未之有也](<오로봉기>, 53면)

승상이 공주궁에서 자고 잇흔날 현쇼저의 침소에 이르러 화촉을 샹디허야 넷날 취향각에서 밍셔허던 일과 나중예 현상샤 편지에 죽엇다흠을 득고 우량초창허야 초상에 인연이 쓴어진줄으라짜가 이갓치맛느니 정녕이 꿈속 갓흔지라 이에 쇼저를 향허야왈 학싱이 부인과 한번 리별후 후 동서표박허다가 외람이 과거에 참방허미 성은이 승허샤 뜻 밍게 초선을 입은지라 스스로 승각허되 가약은 삼상에 억의 여지코 밍셔는 금세에 이루지 못힐 지라 (...) 쇼저ㅣ공순이 디왈 이게 모다 황승의 널부신 은혜와 공주의 어지신 덕이오니 첩이 무슴 ㅅ쩍이 잇샤오리잇가(...) 잇흔날 청숙인의게 이르러 잘시 진교를 평정후후 밍쥬성에 드러가 청슈동의 뵈에 제자니던 말이며 장즈를 훗다가 제강에 빠져 죽은 말을 득고 침실에 들어가 벽상에 붓친 글을 보고 울음 초창허던말을 다허니 청낭이 감격허야 눈물이 옷길을 적시더니 인허야 왈 상공과 리별후후(...) 잇흔날 빅숙인에게 이루니(<오선기봉>, 428~430면)

다음은 백화연과 황태율이 이별하는 장면으로 <오선기봉>에만 등장하는 것이다.

몸을 일어나 가거늘 연낭이 난간머리에서 공즈의 흥진을 바라보니 첩々흔 면산은 느진 빛을 찍여 푸르고당 々흔들 빛은 점은 연기를 찍였느디 한덤 푸른 라귀 가는곳이 점々머리지더니 나중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다만 슈플 시이에 시소리는 바름에 지져괴며 하날가에 도라가는 구름은 숲흔 괴식을 찍엇더라(<오선기봉>, 393면)

<오로봉기>와 비교했을 때 <오선기봉>에서는 축약과 삭제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전반부는 두 작품이 서사 전개에 있어 유사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축약과 삭제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오선기봉>의 제3회는 <오로봉기>의 제3회~제4회와 내용이 같은데, <오선기봉>은 <오로봉기>를 축약하면서 서사 전개 순서를 바꾸고 있다. <오로봉기>에서는 황태율은 청운학과 이별하고 부모를 찾으러 가다가 현상사와 만나고 이후 현상사의 집안 이야기 및 현천홍의 이야기가 서술된다. 그리고 현상사가 환술로 태율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자 황태율이 환술을 부리는 이유를 묻고는 그 이유가 혼인임을 알고 거절하는 내용이 이어진다. 그런데 <오선기봉>에서는 현상사 집안 및 현천홍의 이야기가 황태율의 혼인 거절 장면 이후에 등장한다. 그 밖에 선행 연구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오로봉기>에서는 현천홍의 환술 대목은 두 차례 나타나는데, 이것들이 <오선기봉>에서는 모두 삭제되었다.⁴⁷⁾

이상으로 <오선기봉>의 변형 양상을 살펴보았다. <오선기봉>은 5명의 주인공들이 우여곡절 끝에 다시 만나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리다가 선화(仙化)하는 내용으로 <오로봉기>와 주제가 동일하다. <오선기봉>을 <오로봉기>와 비교했을 때 내용의 확대, 축약 및 삭제 등 변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오선기봉>이 국문 활자본으로 출판되면서 나타난 특징이다. 예컨대 남녀주인공들의 재회 장면이 확대되어 나타나는 것은 대중의 취향에 부합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여주인공이 환술을 펼치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내용 전개 불필요하다고 느낀 개작자가 생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삭제한 것이다.

47) 차충환, 앞의 책, 23면.

V. 결론

본고에서는 <오로봉기>·<황태을전>·<오선기봉>을 <오로봉기> 작품군으로 명명하고 세 작품의 서지 정리 및 상호 대조하였으며 <오로봉기>의 창작 배경과 구성적 특징을 검토하고 <황태을전>, <오선기봉>의 번역과 개작 양상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오로봉기> 작품군의 서지 사항을 정리하고 상호 대조를 통해 세 작품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오로봉기>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으로 한문필사본, <황태을전>은 순천뿌리깊은박물관 소장본으로 국문필사본, <오선기봉>은 국문활자본이다. <오로봉기>와 <오선기봉>의 서지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필사기를 확인할 수 있는 <황태을전>을 분석하여 <황태을전>의 필사시기를 1931년으로 추정하고 한문본을 직접 번역한 이본임을 확인했다. <오로봉기>·<황태을전>·<오선기봉>의 장회 제목과 본문의 표현을 대조하여 현전하는 세 작품이 상호간에 직접적인 영향 관계는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순천뿌리깊은박물관 소장본 <황태을전>과 국문활자본 <오선기봉>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한문본 <오로봉기>를 저본으로 삼아 번역하거나 개작한 것이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오로봉기>는 원작과 일정한 거리가 있는 전사본(轉寫本)임을 확인했다.

제Ⅲ장에서는 <오로봉기>의 창작 배경과 구성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오로봉기>에는 다른 소설들의 화소가 나타나는데, <숙향전>에서 수용한 부분을 살펴보면 <숙향전>의 남주인공 이선과 여주인공 숙향의 화소가 혼합하여 <오로봉기>의 남주인공 황태을의 인물 형상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강릉추월전>과도 유사한 화소가 나타나는데, <오로봉기>와 <강릉추월전>의 남주인공이 도둑 집단에서 양육되다가 이 집단의 여성과 결연을 이룬다는 점이 비슷하다. 그리고 <오로봉기>는 <구운몽>의 서사 전개 방식과 여성 인물 형상에서 유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일대다 결연구도의 반복과 여주인공들이 중심이 되어 문제를 해결하는 전개 방식이 동일하며 <구운몽>의 여주인공들이 가진 특징이 <오로봉기>의 여주인공들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구운몽>의 진채봉과 계섬월이 혼합되어 <오로봉기>의 백화연의 형상에서 보이며 <구운몽>의 이소화와 <오로봉기>의 주계란은 신분과 지연된 결연을 해결한다는 점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오로봉기>에서는 여성영웅소설의 남장모티프를 수용하고 있는데, 여주인공이 남주인공과의 결연을 위한 장치로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오로봉기>는 인기

있는 전대 작품의 화소를 수용하여 독자들이 작품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로봉기>는 가족의 이산과 결합, 남녀의 결연담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황태율은 부모와 헤어져 있을 때 네 명의 여성과 결연을 이루는바, <오로봉기>에 나타난 가족의 이산은 황태율의 결연을 위한 장치로 남주인공의 자유로운 애정실현을 가능하게 한다. <오로봉기>의 결연담을 살펴보면 재자가인소설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데 남녀주인공들이 재자와 가인들이며 모두 뛰어난 문재를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시를 매개로 하여 결연을 이루는 등 재자가인소설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주인공들의 특징을 오행에 배치하여 성, 출생지, 거처 등의 명칭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인물 특성에 오행의 조화로움을 반영하여 인물들 사이에 갈등 없는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주인공들의 성명에는 새의 명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새의 특징을 바탕으로 인물들의 성격을 형상화하고 있다.

제Ⅳ장에서는 <황태율전>과 <오선기봉>의 번역과 개작 양상을 살펴보았다. <황태율전>은 국문 번역본이며 번역 과정에서 문장의 확대와 축약이 나타나고 있지만 대체로 한문본을 충실하게 번역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오선기봉>은 국문 활자본이며 개작본이다. <오선기봉>에서는 내용의 확대나 삭제가 일어난 대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변형은 작품의 구조나 주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한바, <오선기봉>의 개작자는 상업적 목적을 위해 내용을 임의적으로 변형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자료

- <五老峰記>,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황태을전>, 순천 뿌리깊은박물관 소장.
 <오선기봉>,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편, 『활자본고전소설전집』 4, 아세아문화사, 1976.

저서

- 김재웅, 『강릉추월전 작품군의 종합적 이해』, 보고서, 2008.
 김경미, 『19세기 소설사의 새로운 모색』, 보고서, 2012.
 김기동, 『이조시대소설의연구』, 성문각, 1974.
 김상억, 『조선여속고』, 동문선, 2009.
 김열규, 『상징으로 말하는 한국인, 한국 문화』, 일조각, 2014.
 김정숙, 『조선후기 재자가인소설과 통석적 한문소설』, 보고서, 2006.
 성현경, 『한국옛소설론』, 새문사, 2018.
 소재학, 『음양오행의 원리 이해』, 석하명리, 2014.
 신해진 역주, 『완판방각본 이대봉전』, 보고서, 2018.
 양혜란, 『조선조기봉류소설연구』, 이화문화사, 1995.
 이유경, 『고전문학 속의 여성영웅 형상 연구』, 보고서, 2012.
 이상구, 『월본 속향전·숙영낭자전』, 문학동네, 2018.
 정길수, 『구운몽 다시 읽기』, 돌베개, 2010.
 정길수 옮김, 『구운몽』, 돌베개, 2017.
 조희웅, 『한국 고전소설사 큰사전』 34,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7.
 장파, 『동양과 서양, 그리고 미학』, 푸른숲, 1999.

차충환, 『고소설의 개작과 신작』, 역락, 2021.
 한의승, 『19세기 한문중단편소설의 세계』, 경진, 2017.

논문

김석규, 「오선기봉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2.
 김용범, 『도교사상과 영웅소설』, 문학아카데미, 1991.
 김진영·차충환, 「오선기봉의 형성과정과 의의에 관한 연구」, 『어문연구』 62, 한국어문
 교육연구회, 2009.
 엄태식, 「조선 후기 전기소설 국문본의 종합적 고찰」, 『돈암어문학』 39, 돈암어문학
 회, 2021.
 유춘동, 「한일병합 즈음에 유통되었던 고소설의 목록」, 『연민학지』 15, 연민학회,
 2011.
 이상구, 「후대소설에 미친 속향전의 영향과 소설사적 의의」, 『고전과 해석』, 고전한
 문학연구회, 2018.
 정지아, 「오로봉기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논문, 2009.
 조희용 · 松原孝俊, 「속향전 형성연대 재고」, 『고전문학연구』 12, 한국고전문학회,
 1997.
 차충환, 「오로봉기 연구」, 『어문연구』 3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6
 최수경, 「청대 재자가인소설의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01.
 최지녀, 「여성영웅소설의 서사와 이념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4.
 최창록, 「한국신선류소설의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논문, 1983.
 한상현, 「오선기봉의 구조와 여성편력적 의미의 심리적 고찰」, 『겨레어문학』 30, 겨
 레어문학회, 2003.
 한의승, 「조선후기 재자가인소설 관련 논의의 비판적 검토와 전개 양상에 대한 시론
 」, 『인문과학연구』 38,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